

11일 Market Index			
↓ 코스피	2537.60	↓ 코스닥	721.50
	(+3.46)		(-4.32)
↓ 금리 (연이자율)	2.560	↑ 환율 (원/달러)	1452.80
	(-0.036)		(+0.50)

미국發 'R의 공포' 확산... 韓 주식·환율 등 시장 출렁

트럼프 高관세 정책 파장
코스피·코스닥 동반 하락
불확실성 높아져 환율 요동
美 경기 둔화 신호 감지
韓 제조업 전망도 어두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기침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뉴욕증시가 10일(현지시간)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다. /AP/뉴시스

이른바 미국발 'R(경기후퇴)의 공포'가 고개를 들면서 국내 자본시장이 출렁였다. 이는 불황을 감내하고서라도 고관세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따른 파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풀려나는 등 국내 정치상황이 다시 또 혼돈으로 빠져든 가운데 미국시장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불확실성이 가중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11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2.79포인트(1.28%) 내린 2537.60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도 전 거래일보다 4.32포인트(0.60%) 하락한 721.50로 마감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거래 증가 대비 5.9원 오른 1452.2원에 마감했다.

국내 지표들이 수일 내 다시 원위치를 찾아갈 것이라 전망이 나오는 반면, 미국 경기가 실제로 위축되면 금과 미 달러화 등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

는 더욱 짙어질 것이라 예측도 나온다. 이 경우 환율 안정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이민혁 국민은행 연구원은 "미국 경제 수장들의 경기 침체 발언에 뉴욕 증시가 급락하는 등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확산됐다"며 "뉴욕장 분위기가 국내 장에도 전이되면서 외국인 자금 이탈 등 수급 불안이 환율을 자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경제는 코로나19가 잦아들면서 줄곧 호황 국면을 보여 왔다. 지난 2~3년간 분기별·연간 경제성장률 비교에

서 미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을 훨씬 웃도는 경우가 많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경기침체를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과도가 있다"며 상대국에 매기려는 고관세로 인한 자국의 경기 침체를 용인할 방침을 내비쳤다.

이같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고 관세 전쟁에 집착하면서 미국 경제가 다른 국면을 맞게 됐다는 분석들이 나온다. 관세 정책이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전개돼,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는 우려가 국제 투자은행(IB) 사이에서 제기된다.

미국 IB 골드만삭스는 10일(현지시간) 올해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4%에서 1.7%로 0.7%포인트(p)나 내렸다.

골드만삭스는 "행정부가 관세로 인한 단기 경제 둔화를 예상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하향조정의 이유를 밝혔다. 또 관세가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리고 금융 여건을 긴축시켜 기업들이 투자를 미루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경제가 이미 둔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도 나왔다. 지난해 4분기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2.3%를 기록했는데 이는 직전분기(3.1%)에 비해 1%p 가까이 떨어진 수치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업 전망을 밝지 않게 보는 국제 투자은행(IB)들이 늘고 있다. HSBC는 "1월 산업생산 부진은 제조업 전반의 약세를 보여준다"며 "소매판매 감소세 전환과 함께 건설투자 등 투자 부진이 지속되면 (한국의) 1분기 성장률이 더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봤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초엔저'시대 끝 100엔=1000원 23개월來 '최고'

원·엔 환율이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아 100엔당 1000원을 목전에 뒀다. 일본은행의 기준 금리 인상이 압박했다는 관측과 세계적인 안전자산 선호가 엔화 가치를 끌어올리는 가운데 엔화를 사는 가격(환율 우대 없이 환전하는 가격)은 이미 100엔당 1000원을 넘겼다.

11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엔 환율(매매기준율)은 100엔당 989.55원에 주간 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를 마쳤다. 이는 전일 기록한 984.04원에서 5.51원(0.56%) 오른(원화 가치 하락, 엔화 가치 상승) 수준으로, 지난 2023년 4월 27일 이후 1년 11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연초(934.77원) 대비는 54.78원(5.86%) 올랐다.

아울러 이날 엔화의 사는 가격은 100엔당 1006.7원(환전 수수료 1.75% 기준)까지 올라 2일 연속으로 100엔당 1000원을 상회했다. 엔화가 1000원을 넘긴 것은 지난 2023년 5월이 마지막이다. 엔화 가치가 빠르게 치솟으면서, 원·엔 환율이 850원까지 하락했던 '초엔저'가 종료된 모습이다.

최근 엔화 가치가 빠르게 상승하는 것은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이 압박했다는 관측 때문이다. 앞서 일본은행은 지난해 3월 17년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했고,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 금리를 추가 인상했다.

세 차례에 걸친 금리 인상에도 일본 내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지난 10일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1월 근로통계조사'에 따르면 일본 내 5인 이상 기업의 1인당 임금은 월 29만5505엔(약 290만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달보다 2.8%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물가변동을 고려한 실질임금은 1.8% 줄어, 3개월 만에 감소 전환했다.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이 이르면 오는 18~19일 개최하는 금정위에서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고 관측했다. 이후로는 5월 1일이 유력하다. 금리 인상이 압박했다는 관측 가운데 일본의 10년물 국제 금리는 지난 10일 한때 1.575%까지 상승해 지난 2008년 이후 16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다. <3면에 계속>

/안승진 기자 asj1231@

"차별화 된 AI에 독보적 화질... 프리미엄 TV 1등 목표"

LG 올레드·QNED TV 신제품 AI 전용 화질에 음질 '알파11' 추가 중견제 속 소프트웨어 경쟁력 부각

"1500달러 이상 프리미엄 시장에서 매출 1위를 목표로 하겠다"

LG전자는 11일 서울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에서 '2025 LG 올레드(유기발광다이오드)·QNED TV 신제품 브리핑'을 열었다. LG전자는 주력 제품인 올레드 TV와 QNED TV 두 제품의 인공지능(AI) 기능을 대폭 개선하는 한편, 동시 판매하는 전략으로 프리미엄 시장 장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프리미엄 시장은 삼성과 LG전자가 선두를 다투고 있지만 최근 중국 가전 기업들이 초대형 LCD TV를 통해 시장에 침투한 상황이다. 영국 시장조사 기관 옴디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2500달러 이상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50.5%, LG전자는 30.6%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중국 TV 주요 브랜드인 TCL은 1%, 하이센스는 0.5%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LG전자의



LG전자 허승현 AI서비스개발팀장이 매직 리모컨에 탑재된 AI 버튼을 통해 TV 사용 중 문의 사항이나 문제 발생 시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AI 챗봇' 기능을 시연하고 있다. /LG전자

주력 제품인 올레드TV는 시장에서 12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LG전자는 AI 기능이 대폭 강화된 올레드 TV와 QNED TV를 전략적 무기로 내세웠다. 두 모델에는 OLED 전용 화질과 함께 음질 AI 프로세서 '알파11'를 추가했다. 이는 마이크로소프트(MS) 코파일럿, 챗GPT4, 구글 제미나이 등 생성형 AI를 탑재한 결과물이다. 알파11은 TV 화면을 픽셀 단위로

세분화해 화질을 업스케일링하고 밝기를 조정한다.

특히 LG전자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SOC인 A11과 웹OS를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꼽았다. 영상 재생과 동시에 화질과 음성을 개선하는 AI 업스케일링 기능을 구현하려면 고성능 SoC가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신제품은 ▲보이스 ID ▲사용자 맞춤 화질 선택 ▲셀프 수리 기능 등이 가능하다. '보이스 ID'

은 목소리로 사용자를 구분해 개인이 선호하는 콘텐츠를 제공한다. 또 사용자가 화질을 직접 선택할 수 수도 있다. 이와 함께 'AI 챗봇'을 활용한 셀프 수리도 신제품의 핵심 AI 기능이다.

LG전자는 중국 TV의 추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중국 기업이 패널과 같은 하드웨어는 많이 따라왔지만 '소프트웨어' 기술은 LG전자가 앞선다는 설명이다. 백 상무는 "중국 제품의 경우 무료채널은 한국에서 영어만 지원되지만, LG TV는 150개국 언어를 제공하는 등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미 정부의 관세 정책과 관련된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관세를 덜 부과 받는 국가에서 생산하는 방법 밖에 없다"며 "다만, 미국에 공장을 지으려면 SOC 등 공장이 있어야 해서 당장 해결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출시할 77인치 올레드 TV의 국내 출하가는 640만~900만원, 75인치 QNED TV는 319만~469만원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메트로 한줄뉴스



▲ 조국혁신당, 대전 4개구 '지역위원장' 임명... 대덕은 대행
▲ 한미, 연합 공중강습훈련 실시... 한국 대대장이 미 중대 통제 /사진 뉴시스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장외투쟁으로 현재 압박하지 않을 것"
▲ 한미, 연합 공중강습훈련 실시... 한국 대대장이 미 중대 통제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올해 6월부터 시행
▲ 정부, 시리아와 수교 잠정 합의... UN 마지막 미수교국

36년 양대 국적항공사 체제 종지부 통합 항공사 첫 발



부산 테크센터에서 신규 CI 도장을 마친 대한항공 보잉 787-10 항공기.

대한항공 새 CI 공개



“통합 대한항공은 앞으로 마음과 마음, 세상과 세상을 하늘길로 연결하겠다는 수송의 더 뜻깊은 가치에 집중할 것입니다.”(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대한항공이 새로운 기업 이미지(CI)를 공개하고 글로벌 항공사로서의 도약에 나선다. 이번 리브랜딩은 2020년 아시아나항공 인수 발표 이후 4년 만의 변화로 36년간 이어져 온 국내 양대 국적항공사 체제에 종지부를 찍고 통합된 새로운 항공사로서의 첫 발을 내딛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11일 서울 강서구 본사 격납고에서 개최된 ‘라이징 나이트’ 행사장에서 대한항공 고유의 태극마크를 현대적인 이미지로 재탄생시킨 신규 CI를 공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새롭게 공개된 대한항공의 새 로고는 기존 대한항공 태극마크에 디자인적 요소를 가미해 세련된 이미지를

구현했다. 최근 주요 기업 브랜드가 추구하는 모던함과 미니멀리즘 트렌드를 추구하면서도 대한항공 고유의 헤리티지를 계승했다.

태극마크 옆 항공사명을 보여주는 로고타입 ‘KOREAN AIR’의 디자인은 최고의 국적 항공사다운 격식을 갖추면서도 개성을 놓치지 않았다. 서체 끝에 적용된 붓터치 느낌의 마무리와 부드러운 커브, 열린 연결점 등으로 한국식 우아함을 현대적으로 표현했다.

이날 대한항공은 새 CI를 입힌 항공기도장, 리버리도 공개했다. 격납고 뒷편을 가리고 있던 천막이 걷히며 보잉 787-10 항공기가 등장했다. ‘프레스티지 스위트 2.0’ 등 대한항공의 새로운 기내 인테리어를 적용한 신형기 HL8515다. 대한항공 새 로고로 처음 옷을 갈아입은 이 항공기는 12일 인천에서 일본 도쿄 나리타로 향하는 KE703편에 투입될 예정이다.

대한항공의 새로운 항공기도장은 대한민국 대표 항공사로서의 자신감을 나타내기 위해 로고타입 ‘KOREAN’을 볼드하게 표현했다. 이 같은 방식은 ‘American(아메리칸항공)’, ‘Swiss(스위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11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신규 CI 공개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앞으로 마음과 마음, 세상과 세상 하늘길로 연결 ‘수송’ 가치 집중”
새 로고, 대한항공 헤리티지 계승 CI 입힌 항공기 도장, 리버리 공개
“누구도 넘보지 못할 안전체제로 특별한 고객의 경험 선사할 것”

스항공’ 등 주요 글로벌 항공사들도 사용하고 있다.

조 회장은 “리브랜딩을 바탕으로 누구도 넘보지 못할 안전 체계를 갖춰 특별한 고객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며 “모든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며 신뢰를 쌓아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할 것”이라고 향후 대한항공이 나아갈 방향을 설명했다. 이어 “통합 대한항공은 이제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항공사로서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오랜 시간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하나로 보듬고, 장점을 살려 문화를 융합해 세상에 볼 수 없었던 새롭고 멋진 항공사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아시아나항공과 합병 이후 인력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 회장은 “현재 양사간 차이는 있지만 앞으로 2년간 통합되기 전까지 최대한 간격을 좁히는게 목표”라며 “직급과 연봉, 복지 등 합리적인 선에서 직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마일리지 통합도 고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진행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이날 새로운 기내식 메뉴와 업그레이드 된 기내 서비스도 공개했다. 이번 기내식은 서울 한남동 소재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Cesta’의 오너 셰프인 김세경 셰프와 협업해 개발했다. 신선한 제철 식재료와 다양한 조리법을 사용한 고급 파인 다이닝을 하늘에서도 즐길 수 있게 한 점이 특징이다.

상위 클래스의 경우 아뮤즈부쉬와 애플 파이저 메뉴를 고급화하여 특별한 기내식 경험을 제공한다. 빠빠요프, 뷔피푸르 등 새로운 스타일의 주 요리와 디저트를 도입해 섬세한 맛과 시각적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한국 고유의 재료와 조리법을 살린 문어 영양밥, 차돌박이 비빔밥, 전복덮밥, 신선로 등을 주요리로 선정함으로써 대표 국적항공사로서의 정체성을 표현했다. 일반석 기내식으로 제공되던 한식도 기준에 나물과 쇠고기 위주였던 비빔밥을 연어 비빔밥, 낙지제육덮밥 등으로 다양화한다. 또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두부팟타이, 매운 가지볶음, 로제 파스타 등 다채로운 메뉴를 도입한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中企협동조합 협의요청권 국회통과 기대”

중기중앙회-더불어민주당 간담회 중기 상생금융지수 도입 등 논의 “주 52시간제, 중처법도 개선해야”

중소기업중앙회가 더불어민주당측에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협의요청권을 도입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주 단위’ 연장근로는 현실에 맞지 않라며 ‘주 52시간제’도 개선해달라고 전했다.

중기중앙회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기획재정부 소속의 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도입 ▲소기업·소상공인 특화 T커머스 채널 신설 ▲중소기업 기업승계특별법 제정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주요경비까지 확대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민주당에선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직능대표자회의 공동의장), 김교흥 의원(산자중기위 책임의원), 이언주 의원(최고위원), 김원이 의원(산자중기위 간사) 등 6명이 참석했다.

중기중앙회에선 김기문 회장을 비롯

해 권혁홍·배조웅 수석부회장, 심승일·노상철·한병준 부회장 등 14명이 자리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도입은 김원이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님께서 대표 발의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꼭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며 “중소기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애로를 겪고 있는 주 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해 개선방안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에선 대·중소기업간 거래상 지위 차이와 취약한 협상력 때문에 납품단가 등에서 대등한 협의가 어렵고, 특히 거래상 지위 고착은 개별 기업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어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을 개정해 협의요청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일본의 경우 협동조합은 ‘단체협약’을 활용해 거래상대방과 가격, 물량 등 거래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호주도 ‘경쟁 및 소비자위원회(ACCC)’를 통해 단체교섭을 허용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주 52시간제의 경우 ‘주 단위’ 연장근로가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

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수출·제조기업의 경우 수위탁 거래가 많아 근로시간을 스스로 결정하기 어렵고, 납기가 곧 기업경쟁력 및 주주와 직결돼 주 단위 연장근로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화장품을 수출하고 있는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재료를 받는 기간과 제품을 생산해 납품하는 기간이 모두 지연돼 납기가 늘어나면서 홍콩 거래처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다”고 애로를 전했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노사합의시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주·월·분기·반기·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업무량 폭증’ 등 인가요건을 명확화하고 불인정 사유를 삭제하는 등 특별연장근로 인가요건도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경제현안을 챙기기 위해 310개에 달하는 직능단체를 의원별로 전담하기로 했다”면서 “중기중앙회 전담 의원으로 지정된 만큼 앞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중소기업 현장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

금융사 88% “비금융업 규제, 경쟁력 악화”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사 210곳 대상 비금융업 영위 현황과 개선 과제 조사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시대에 비금융업 진출 규제 때문에 금융업 경쟁력 전반이 악화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210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영위 현황과 개선 과제’를 조사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응답 회사의 88.1%는 해외 금융회사 및 빅테크 기업과의 경쟁에서 비금융업 진출을 막는 국내 칸막이 규제가 산업 경쟁에 불리하다고 답했다.

또한 71.5%는 비금융 업종도 함께 영위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비금융업도 하는 회사(39.5%)보다 금융업만 하는 회사(60.5%)가 훨씬 많았다.

규제 개선을 위한 구체적 정책 과제(복수응답)로는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범위 확대’(55.2%)가 가장 많았고 이어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비금융업종 범위 확대’(53.3%)와 ‘비금융사 출자한도 완화’(41.9%), ‘혁신금융서비스 개선’(40.0%),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위탁 허용’(31.4%)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금융사가 수행할 수 있는 부수업무를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부 차원에서 한때 논의됐으나 추진 동력을 잃은 상태다.

혁신금융서비스 제도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한 투자회사 관계자는 “IT 사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다른 금융사와 협업하려 했으나 샌드박스 기간 중간에 참여할 수 없었다”며 “2년이 지나도 관련 법이 정비되지 않아 산업 자체가 도태될 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규제가 오히려 혁신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외 금융사들은 규제 완화를 통해 비금융업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미국 JP모건체이스의 자회사 체이스은행은 여행 플랫폼 ‘Chase Travel’을 출시해 신용카드 사업과 시너지를 창출하며 2023년 미국 5위 여행사로 성장했다. 모건스탠리는 지난 2019년 이후 4개의 헬스케어 기업을 인수하며 M&A 및 자문 사업을 확대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나스닥 4%대 급락 '쇼크'... 亞 주요국 증시 1% 이상 하락

美 행정부, 주가하락 수용적 태도 불확실성 고조... 안전자산 급부상 "국내 증시도 빗겨나기 어려운 상황"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가 아시아 증시를 뒤흔쳤다. 11일 한국 코스피는 1% 넘게 빠지며 2530선대로 밀렸고, 일본 닛케이평균은 1% 가까이 하락했다. 대만 자취안지수 역시 2% 가까이 밀려나며 출렁였다. 중국증시도 휘청였다.

이날 주가하락은 미국발 경기침체 공포가 전세계 금융시장을 휩쓴 영향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올해 경기침체를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과도기는 있을 것"이라고 발언하며 경기 악화를 감수하겠다는 뜻을 내비치자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다. 이 영향에 미국 3대 주요 증권지수인 다우평균은 2.08%, S&P500 지수와 나스닥지수는 각각 2.70%, 4% 내렸다. 나스닥지수 낙폭은 인플레이션 충격이 최고조에 달했던 2022년 9월13일(-5.16%) 이후 2년 6개월 만에 최대였다.

◆ 금융시장 '트럼프세션' 빨려들어가

이날 코스피는 1.28% 하락한 2537.60에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5.9원 오른 1458.2원에 전장을 마감했다.

다시 고개를 든 'R'의 공포에 대한 두려움 탓이다. 세계경제가 트럼프발 리스크에 흔들리고 있고, 그러나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도 어려워지고 있어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2월 누적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75% 감소했다.

내수도 마찬가지다. 악화된 환경 탓에 투자와 소비가 쪼그라들고 있다. 통계청의 '2025년 1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재화소비를 뜻하는 1월 소매판매가 전월보다 0.6% 감소했다. 소매판매는 지난해 10월과 11월 0.7%씩 감소했다가 12월(0.2%) 소폭 반등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설비투자도 전월보다 14.2% 빠졌다. 2020년 10월(-16.7%) 이후 최대 감소



1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2570.39)보다 32.79포인트(1.28%) 내린 2537.60에,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725.82)보다 4.32포인트(0.60%) 하락한 721.50에 거래를 마쳤다. /뉴시스

폭이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12.6%), 기타운송장비 등 운송장비(-17.5%)에서 줄어든 여파가 컸다. 주요 내수지표 중 하나인 건설경기도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전세계 금융시장도 '트럼프세션(트럼프와 침체를 뜻하는 리세션을 합친 말)'에 빨려들고 있다. 세계은행(WB)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직전 전망치와 같은 2.7%로 유지했다. 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편관세 부과를 세계 경제 하방 요인으로 지목하며 보편관세가 무역전쟁을 촉발할 경우 기존 전망치보다 최대 0.3%포인트가 낮아질 수 있다고 봤다.

세계 각국이 무역 보호 장벽을 세우면서 성장 동력인 교역량이 크게 줄어들 조짐이 이미 보인다. 교역량의 선행 지표인 컨테이너 해상운임(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은 지난 7일 기준으로 14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었고, 항공 운임(발틱항공운임지수)은 올해 들어 20%나 떨어졌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지난 9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최근 주식 시장의 하락세는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면서 "결국 대규모 붕괴 사태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테미스트레이딩의 조 살루치 창업자는 "시장은 이미 현시점에 경기침체를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

만, 아직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며 "현시점에서 문제는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일단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내 증시 美 영향권... 경기 민감주 위주 급락

시장 참여자들은 당분간 '불확실성'이 시장을 지배할 것으로 본다. 실제 증시를 떠난 투자자들은 채권, 특히 초단

기채로 향한다. 대신증권이 올해 들어 지난 7일까지 판매한 초·단기채 펀드 판매액이 1조970억원에 달했다. 최대경대신증권 고객자산부문장은 "미국의 관세 정책, 내수 침체, 고물가 등으로 인해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안전 자산 선호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글로벌 증시가 이대로 무너질까. 전문가들은 밸류업 부담 해소와 기업 성장성 의문이 해소되기 전까지 시장이 출렁일 것으로 본다.

최성락 국제금융센터 자본유출입분석부장은 "미국을 중심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누적된 상태"면서 "특히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빅테크 업종은 주가에 반영된 시장 기대치가 지나치게 높았던 것이 조정요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경제지표 둔화 조짐과 함께 무역전쟁 확산에 따른 이익마진 축소 등으로 기업실적 악화 우려가 부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염승환 LS증권 리테일사업부 이사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무너진 것은 아니므로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이 점차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미국 증시가 본격적으로 반등하려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나 증시 부양 신호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12일 발표될 예정인 2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도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2월 CPI는 0.3% 상승이 예상된다.

국내 증시도 미 증시의 영향권에 있을 전망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현재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심이 반영되면서 경기 민감주 위주로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며 "미국 증시에서 빅테크(거대 기술기업) 위주로 많이 빠지다 보니 국내 증시도 빗겨날 수 없었다"고 분석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관세전쟁에 안전자산 선호... 엔화수요 영향

>> 1면 '초엔저 시대 끝...'서 계속

앞서 우치다 신이치 일본은행 부총재는 지난 5일 "완화 수준을 서서히 조정해 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경제와 물가 안정을 이루는 길"이라며 "경제와 물가가 예측대로 움직이면 금리를 계속 올려 금융완화 정도를 조정해갈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발(發) '관세 전쟁'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도 엔화 가치를 끌어 올렸다. 달러화가 관세 전쟁 여파로 과도한 변동성에 노출되면서, 헤지 수단(자산 가치 변동을 줄이기 위해 기존 자산을 대체하는 것)으로의 엔화 수요가 늘고 있어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이어 유럽연합(EU)·한국 등에도 관세 압박을 전방위로 확대하는 가운데, 일본은 미국의 관세 압박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국가로 평

가받고 있다. 일본은 주요국 가운데 대(對)미 투자액 규모와 현지 생산 비중이 가장 큰 국가다.

무역 갈등 심화로 달러 선호가 줄면서 달러 가치의 지표가 되는 달러 인덱스는 11일 장중 103.7까지 하락했다. 지난해 11월 5일 치러진 미 대선 이후 최저치다. 반면 엔화의 지표가 되는 엔·달러 환율은 이날 달러당 147.27엔까지 하락(엔화 가치 상승)해 지난해 10월 이후 최저치(엔화 가치 최고)를 기록했다.

박상현 iM증권 전문위원은 "일본 국내 금리가 16년 만에 1.5%를 상회하는 등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감 확산에 엔·달러 환율이 147엔대로 하락했다"며 "트럼프의 관세정책 등 각종 발언이 외환 시장 변동성을 높이는 가운데 2월 미 소비자물가 등 각종 지표가 달러화의 추가 약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LX하우시스

LX Z:in 향호

향호의 새로운 뷰가 되다 뷰프레임

2024 한국산업의 브랜드 파워 향호 부문 최다 1위 (18회)

中 'RISC-V' 등 반도체 정책지원 강화... 기술 자립 가속화

(개방형 칩 설계 기술)

글로벌 반도체 굴기

中, 설계·제조 분야 등 존재감 확대
美, 통제 방안 모색... 제재 미지수
“韓, 정부 차원 R&D 지원 절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재 강화 속에서 중국이 '오픈소스' 기술을 적극 활용하며 기술 자립을 가속화하고 있다.

10일(현지 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개방형(오픈소스) 칩 설계 기술인 리스크 파이브(RISC-V)의 전국적 활용을 장려하는 정책 가이드를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가이드는 중국 사이버공간 관리국, 공업정보화부 등 8개 정부 기관이 공동으로 마련 중이며, 이르면 3월 내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최종 발표 시점은 변동될 수 있다.

중국은 정부의 지원 아래 RISC-V 기반 CPU 양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바오윈강 중국과학원(CAS) 계산기술연구소 부소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웨이보 계정에서 “상



챗GPT로 생성한 '글로벌 반도체 굴기' 이미지.

산 프로젝트를 통해 올해 고성능 오픈소스 CPU를 인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연구 경쟁 치열

반도체 연구 동향에서도 중국의 성장이 두드러진다. 미국 조지타운대 신기술동향 관측소(ETO)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발표된 반도체 설계 및 제조 관

련 논문을 분석한 결과, 중국 연구자가 포함된 논문 수는 16만852건으로, 미국(7만1688건)의 두 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지타운대 연구진은 “이번 분석은 영어 초록이 있는 논문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중국어로 작성된 논문까지 포함하면 중국 연구자의 비율이 더 높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논문의 연구 영향력에서도 중국이 선두를 차지했다. 인용 횟수가 상위 10%에 속하는 논문 중 중국 연구진이 작성한 논문은 2만3520건으로 미국(1만3000건), 한국(3,920건), 독일(2,716건), 인도(2,706건) 등을 크게 앞섰다. 또 2018~2023년 반도체 연구를 가장 많이 수행한 상위 10대 기관 중 9곳이 중국 연구기관이었다.

미국은 중국의 RISC-V 활용을 경계하며 통제 방안을 모색 중이지만, 오픈소스 기술의 특성상 효과적인 제재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RISC-V는 온라인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는 명령어 집합에 불과하다”며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등에 비해 실질적인 제재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韓, 메모리 중심 구조 한계 극복을

한국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 중심 구조로, 설계 IP 및 아키텍처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도체 설계·제조 관련 논문 수

에서도 한국은 2만8345건으로 중국, 미국, 인도, 일본에 이어 5위에 머물렀다.

이러한 상황에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RISC-V 연구개발(R&D)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아직 상용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어드밴스드 프로세서 랩(APL)에서 RISC-V 기반 AI 칩 연구를 진행 중이며, SK하이닉스도 AI 반도체 개발과 연계해 RISC-V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중국이 정부 주도로 반도체 자립과 오픈소스 기술 도입을 가속하는 상황에서, 한국 역시 장기적인 전략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한국 반도체 산업이 메모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려면 RISC-V 같은 오픈소스 기반 시스템 반도체 개발에도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며 “기업뿐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R&D 지원과 생태계 조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정부, 반도체업계 근로시간 규제 완화 나선다

반도체특별법 정부 대책

산업부, 반도체업계 애로사항 청취
고용부, 특별연장근로지침 개정 예고

정부가 반도체 연구직 근로자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연구직의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법 제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지침을 개정해 연장근로를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장관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판교 소재 동진세미켐 R&D센터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를 개최, 업계 애로

를 듣고 이같은 정부 차원의 조치를 논의했다.

정부 차원의 조치는 고용부의 특별연장근로지침을 개정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인가요건이 까다롭고 연장근로 기간이 짧아 업계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 관계자는 “연구직 근로시간 특례가 포함된 반도체특별법 제정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산업부가 업계 의견을 받아 고용부에 요청한 것”이라며 “곧 고용부가 특별연장근로 지침을 개정해 근로시간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종합 반도체 기업과 동진세미켐, 주성엔지니어링 등 반도체 소부장 기업, 리벨리온 등 팹리스 등 업계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경제단체가 총출동했다.

이날 반도체 기업들은 “근로시간 규제 완화로 인해 연구개발 성과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부서간 협업 저해, 근로시간 최대한도를 채운 경우 강제 휴가 등 연구에 몰입하는 문화가 악화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연구 현장의 고통을 토로했다.

안덕근 산업장관은 “반도체 전쟁은 기술전쟁이고, 기술전쟁은 결국 시간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판교 소재 동진세미켐 R&D센터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두번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세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싸움”이라며 “미국, 일본, 대만은 국운을 걸고 반도체 생태계 육성 중이고, 중국은 우리 주력인 메모리 턱말까지 추격해 온 상황에서 우리 반도체 업계만 근로시간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현실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연구개발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된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반도체산업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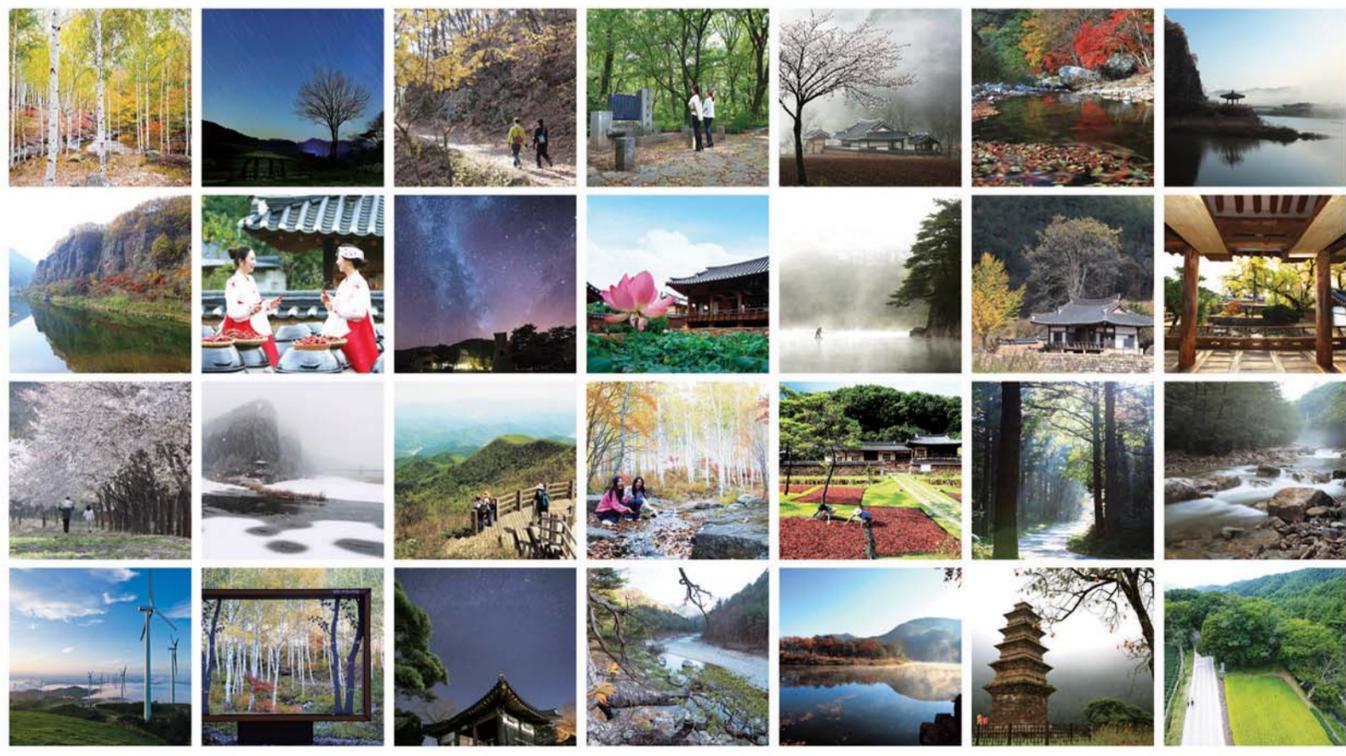
주말 & 영양

올해 갈 곳은 영양입니다

월·화·수·목·금 ♥ 영양

영양 가있는 ~ 주말!
영양가 있는 ~ 생활!





★★★★★
 새로워진 Galaxy S25
 KT에서 만나다

★★★★★
 2년 뒤에도 우리의
 AI 일상은 계속 되도록

★★★★★
 AI로 이어지는
 너와 나의 미래는..

새로 나온 AI폰이예요?

맞아요, KT

AI폰은 KT KT는 AI

2년 뒤에도 함께 해요, 우리



KT 갤럭시 체인지 초이스
 2년 후 반납 시 쓰던 폰 최대 50% 보장
 안심 체인지 New 갤럭시 AI 클럽

kt, 당신과 _ 미래 사이에

[KT 갤럭시 체인지 초이스] 갤럭시 S25 시리즈 단말기(자금제 포함) 한정, '25.4.30까지 가입 가능 / 개통 후 7일 이내 고객 한정 / 요금제(프리미엄/스페셜) 가입 후 월말까지 유지 시 해당 월의 '안심체인지 New AI 클럽' 할인 혜택 적용되며(베이직 고객은 할인 미적용), 요금제 변경, 정지, 해지 시, 해당 월의 할인 혜택은 월정액 정상 청구 / 요금제 해지나 변경 시 할인 혜택도 자동 해지되며, 요금제 변경은 익월 1일 예약변경으로만 가능 [안심체인지 New 갤럭시 AI 클럽] '갤럭시 체인지 초이스' 가입 후 별도 가입이 필요 / 갤럭시 S25 시리즈 단말기 개통 후 7일 이내만 가입 가능 / 갤럭시 체인지 초이스 이용 고객 한정 가입 가능(단독 가입 불가) / 갤럭시 체인지 초이스 프리미엄, 스페셜 고객은 무료로 이용 가능, 베이직 고객은 8천원/월 추가 요금이 발생 / (2년 후) 중고폰 매입 : 2개월 후 반납 조건 충족하고 3개월 이내 KT 신규 폰으로 우수기기 변경하는 경우, 반납 폰의 가입 당시 출고가의 최대 50% 보장, 중도 폰 교체 서비스 이용했을 경우 최대 20% 보장(단, 단말 상태에 따라 반납 불가하거나 수리 후 반납 혹은 보장금액에서 차감되는 경우 있음) / 중고폰 매입 고객부담금은 가입시 출고가의 5% / 자세한 사항 www.kt.com 참조

與野 양보에… 배우자 상속세 폐지·일괄공제 확대 ‘급물살’

상속세 방식, 유산세 → 유산취득세 최고세율 인하는 이견… 추후 논의 관련 개정안, 패스트트랙 지정 제외 민생 회복과 거리 멀다는 지적 있어

정기권이 상속세 공제한도 완화와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골자로 한 상속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논의의 입장차를 줄이고 한발씩 양보하면서 모처럼 합의의 여야 협의의 처리를 바라볼 수 있게 됐다.

상속세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현행 50%인 최고세율을 40%로 인하하고 대기업 최대주주가 적용받는 할증 평가제도를 폐지하는 안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기준 5억원을 각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완화하자고 주장해왔다.

상속세 개편 논의는 야당이 최고세율 인하여 반대해 진전되지 못했으나, 국민의힘이 지난 6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면 폐지하고 상속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면서 반전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수용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대표는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수평 이동이기 때

문에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며 “여당이 상속세 일괄공제를 올리는 것도 동의하는 것 같은데, 배우자 상속세 면제 폐지를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상속세법 개정안을) 처리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세

액공제 한도 확대 등 합의된 것을 먼저 처리하고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추후에 계속 논의하는 입장이어서, 한 발 양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민주당은 여야의 논의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상속세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견이 큰 입법 사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워 처리하겠다는 구상이었는데, 여야 합의의 길이 열리면 신속한 처리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오전 취재진과 만나 “상속세법 합의 처리 가능성이 열린 상황이라고 인식한다”며 “그 외에 세가지 반도체법, 은행법, 가맹사업법은 계속해서 패스트트랙을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상속세 일괄 공제한도 확대 관련해서 여야 지도부 간 조율된 사항이 있냐는 질문엔 “지금 워낙 정국 대립과 갈등이 심한데, 이 정도의 정치적 공감대가 형성됐으면 패스트트랙 지정에서 제

외하고 논의를 허심탄회하게 하는 단계로 가는 것이 적절치 않겠느냐는 정무적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부유층이 과세 대상인 상속세 완화에 여야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민생 회복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제연구센터장의 연구에 따르면 국민들이 예상한 상속세 납부 피상속인 비율은 평균 35.2%지만 실제 과세 대상 비율은 4.5%에 불과했다.

또한 참여연대가 지난 4일 주최한 ‘상속세 감세 주장이 숨기고 있는 쟁점들 바로보기’ 기자회견에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상속세는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여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데에도 필요하다”며 “상속소득을 노동소득보다 더 우대해준다면 조세중립성이 훼손되어 조세제도가 경제주체들의 경제적 선택을 왜곡하여 시장의 비효율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野, ‘尹 탄핵촉구’ 장외집회 돌입… 與 일부 의원, ‘탄핵반대’ 시위

野, 광화문서 릴레이 발언 등 여론전 단식 투쟁·삭발식 진행하기도 與, 의총서 현재 기조 유지 결정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선고만 남겨둔 가운데, 야당이 장외 집회에 열을 올리며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탄핵 찬성장의 집회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총을 거쳐 합의했다. 일부 의원들은 현재 앞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민주당은 11일부터 현재의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기 위해 활동 거점을 국회에서 광화문으로 옮겼다. 민주당은 광화문에서 천막을 치고 윤 대통령을 규탄하는 릴레이 발언을 하는 등 여론전에 나설 예정이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단식과 삭발을 했다.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소속인 김준혁·민형배·박수현 민주당 의원과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 광화문에서 윤 대통령 이 파면될 때까지 단식 투쟁에 나섰다.



전진숙(왼쪽부터), 박홍배,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기 파면 결정을 촉구하며 삭발을 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광화문 옆 경복궁역에선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하고 있다.

전진숙·박홍배·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1시30분에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했다. 전진숙 의원은 “계엄이 선포된 지 98일째다. 1980년 5월 저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다. 계엄이 선포되고 나면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너무도 잘 아는 사람”이라며

“계엄 이후 밤을 먹어도 잠을 자도 소화도 안되고 잠이 안 온다. 비단 저만 그러겠냐”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전 의원은 “수천만명의 국민들이 똑같은 마음일 것”이라며 “그 부담을 가장했던 것이 윤 대통령의 석방이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 저희들에게 일어났다”고 했다. 이어 “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책동했던 당사자를 법원과 검찰이 풀어줬다”며 “제 머리카락으로 짚신



국민의힘 윤상현, 강승규 의원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 촉구 릴레이 시위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을 만들어 현재 재판관에게 보내겠다. 제 몸이라도 던져서 현재 재판관에게 국민이 얼마나 절절하게 파면을 요구하고 있는지 보여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같은날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정국 속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나, 지금과 같은 기조를 유지하고 장외투쟁 같은 여론전을 펼치지 않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총 후

취재진에게 “특별히 문제가 있을 때 회의를 통해서 입장을 밝히고 민주당처럼 단식을 통해 현재를 압박하는 행동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맹목적으로 윤 대통령을 지지해 ‘맹운(윤석열)’으로 떠오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의총 중 나와 취재진에게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회 해산”이라며 국회의원 총사퇴 결의를 제안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절차적 정의를 위반한 흠결이 있는 탄핵 심판 선고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어서 탄핵은 각하돼야 한다”며 “의원들도 가만있어서 안 된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현재 앞에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오늘 2시부터 기자회견을 한 뒤 국민의힘 박대출, 장동혁 등 의원들이 24시간 릴레이 시위에 동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위는 현재 선고가 날 때까지 할 예정이다. /박태홍 기자

尹, 탄핵심판 선고 의식했다… 조용한 ‘관저정치’

선고 압박에 정치적 발언 자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지 나흘째인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별다른 입장 없이 조용히 관저에 머무르고 있다.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을 때까지 차분하고 겸허하게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탄핵심판 선고가 압박 상황이라, 민감할 수 있는 정치적 발언은 자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8일 한남동 관저로 돌아간 윤 대통령은 이날인 9일 대통령실 참모진과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났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 및 체포 이후

여당 인사들과 접촉할 때마다 강경한 메시지를 냈다. 하지만 석방 이후 첫 접촉에서는 “당을 잘 운영해 줘서 고맙다”는 입장이 끝이었다.

당초 윤 대통령이 석방될 때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 발(發) 여론전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8차례 헌법재판소 변론기일 참석과 변호인단을 통해 극렬 지지층에 호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전망과 다른 윤 대통령의 행보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는 메시지를 추가적으로 내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관들이 평의를 거듭하는 상황에서 현재를 자극하거나 야당의 공세에 빌미를 주지 않으려는 의도다.

한편, 이번주로 예상된 현재의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주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현재는 감사원장 및 검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13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통상 현재가 이를 연속 탄핵심판 선고를 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14일에 선고할 가능성은 낮아졌다.

이에 당분간은 윤 대통령이 침묵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선고일이 확정될 경우 윤 대통령의 입이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예진 기자 syj@

崔 대행 “맞벌이 전세임대 소득 200%로”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참석 외벌이는 월평균 소득 130%로 완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맞벌이 가구 전세임대 소득기준을 200%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에 대한 전세임대 소득기준을 외벌이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에서 130%로, 맞벌이 가구는 120%에서 200%로 완화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

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초고령 사회에서 첨단기술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는 ‘에이지테크(Age-Tech)’ 기반 실버경제를 육성하기 위해 3000억원 규모의 범부처 에이지테크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등 기술 투자를 촉진할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전통 실버산업과 첨단기술이 융합된 에이지테크 중에서 돌봄로봇, 웨어러블 및 디지털의료기기, 노인성질환 치료, 항노화 및 재생의료, 스마트 홈 케어를 5대 중점 분야로 선정해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예진 기자

| 우리의 걸음이 길이 되도록



SK이노베이션이 SK E&S와 하나되어 100조 규모의 아태지역 최대 민간 에너지 기업으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에너지를 찾아라

SK이노베이션이 SK E&S와의 합병으로 더 크게 더 높게 도약합니다

펼쳐진 지도 속 더 나은 내일을 향하는 우리의 에너지를 직접 찾아보세요

QR 코드를 찍어 접속해 10개의 숨은그림을 찾아보세요!



SK 에너지

SK 지오센트릭

SK 온

SK 엔루브

SK 인천석유화학

SK 아이이테크놀로지

SK 에스온

연체율 부담 인터넷은행... 지방은행과 손잡고 리스크 관리

중저신용 대출 늘자 연체율 ↑
시중은행비 2~3배 높은 수준

토스뱅크, 광주銀과 공동대출
케이뱅크, 부산銀과 상품 준비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중·저신용자 대출 증가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은행과 신용평가시스템으로 대출 한도와 금리를 결정해 반반 대출을 진행하는 공동대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어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잔액 비중은 평균 34%로 나타났다. 앞서 금융당국은 금융이력부족자(Thin filer·신과일터) 등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은행을 설립했다.

B kakaobank

Kbank make money

toss bank

카카오뱅크는 설립 목적에 따라 신용평가 모델을 고도화해 신용대출 잔액 대비 중·저신용자 대출 잔액 비중을 2020년부터 2023년 말까지 10.2%→30%로 늘렸다.

같은 기간 케이뱅크는 21.4%→32%, 토스뱅크는 34.9%→44%로 확대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0% 이상의 비중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시한 상태다.

문제는 중·저신용자 비중이 늘어날수록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보면 카카오뱅크 연체율은 2020년 0.

22%에서 2023년 0.49%로 2배가량 오르더니, 지난해 1분기 0.47%→2분기 0.48%→3분기 0.48%→4분기 0.52%로 상승했다.

지난해 4분기 실적발표가 나지 않은 케이뱅크와 토스뱅크의 3분기 연체율은 각각 0.88%, 0.99%로 1년 전과 비교하면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시중은행의 연체율이 평균 0.3%인 것과 비교하면 2~3배 높다.

이에 따라 인터넷은행들은 지방은행과 공동대출을 확대하려는 모양새다. 공동대출은 금융소외계층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은행 앱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이 각각 대출심사를 진행한 뒤 대출 한도와 금리를 결정해 인터넷은행 앱에서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지난 8월 토스뱅크는 광주은행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 지난해 8월 공동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고객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많은 광주은행을 통

해 대출심사를 꼼꼼히 하고, 토스뱅크 앱으로 추심업 허가 없이 광주은행 대출분에 대한 안내와 원리금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리스크가 적은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공급하고, 중저신용자가 기간을 착각할 것에 대비해 원리금을 토스뱅크 앱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연체율을 줄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케이뱅크는 부산은행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하반기 공동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카카오뱅크와 전북은행은 아직 금융당국으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지 못한 상태다.

은행권 관계자는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고 싶지만, 아직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 받지 못한 상태”라며 “중저신용자 대출이 개인사업자 등도 포함하는데, 개인사업자 대출까지 공동대출로 내놓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신한 메리어트 본보이 플레이트. /신한카드

신한카드 메리어트 본보이 카드 최대 2.4만 포인트 증정

신한카드는 '메리어트 본보이 신한카드' 이용자에게 최대 2만4000포인트를 추가 증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오는 31일까지 이벤트에 응모하고, 내달 30일까지 200만원 이상 이용한 고객에게 7000포인트를 준다. 300만원 이상 이용하면 5000포인트를 추가 지급한다. 포인트는 메리어트 본보이 포인트로 제공한다. 메리어트 본보이 카드는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의 멤버십 카드다. 연 1회 무료 숙박권과 골드 엘리트 멤버십 혜택 등을 지원한다.

롯데카드 군마트·통신 등 할인 밀리패스·디지로카

롯데카드는 11일 '밀리패스·디지로카' 카드를 출시했다.

이번 상품은 ▲국군복지단 군마트 ▲아파트관리비 ▲이동통신 ▲대중교통 ▲보험료 등 업종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전월실적 50만원을 충족하면 업종별 최대 5000원을 할인한다.

스트리밍 업종에선 월 최대 1500원을 아낄 수 있다. 아파트관리비와 이동통신, 보험료, 스트리밍 업종 할인 혜택은 자동납부 이용 건에만 적용한다. 오는 31일까지 국군복지단 군마트와 국군복지단 체력 단련장에서 밀리패스·디지로카 카드로 결제 시 결제금액의 최대 20%를 할인한다. 연회비는 2만원이다.

KB국민카드 봄맞이 숙박세일 행사 롯데월드도 30% 할인

KB국민카드는 국내 숙박 상품과 롯데월드 어드벤처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오는 30일까지 KB페이 고객을 대상으로 '2025 대한민국 봄맞이 숙박세일 페스타'를 진행한다. 정부지원 숙박 할인을 제공하며, 3만원 숙박 할인권 적용 후 7만원 이상 결제 시 추가 10% 즉시 할인을 적용한다.

오는 16일까지 '스테이그라운드' 무료 숙박권을 총 8명에게 제공한다. 행사 기간 중 KB페이 신규 가입 고객에게는 추천 기회를 3회 더 제공한다.

롯데월드에서 행사 대상 카드를 이용하면 동반 1인 30% 할인 혜택을 오는 31일까지 운영한다. /김정선 기자

'집 맡길게요'... 저축은행, 아파트 담보대출 58% 증가

가계대출 문턱 높아자 담보대출 ↑
고신용 차주 확보 등 보수적 기조

아파트 등 집을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급전'을 빌린 사업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이 가계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저축은행을 찾는 자영업자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11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2월 저축은행이 3억원 이상 취급한 아파트·주택담보대출은 142건이었다. 전년 동기(91개) 대비 57.7% 증가한 것이다. 저축은행 아파트 담보대출은 본인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사업 자금을 빌리는 상품이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이용 비중이 높다.

저축은행의 담보대출 취급 비중이 늘어난 것은 보수적인 경영 기조 때문이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담보대출 마케팅을 확대했다. 수도권외의 경우 부동산



챗GPT가 생성한 '아파트 담보대출' 이미지.

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신규 취급을 중단한 데다 중저신용차주 대상 리테일(소매금융)을 확대하기에는 리스크가 높다는 판단에서다.

지난달 아파트 담보대출을 시행한 저축은행의 상품별 금리 하단은 평균 연 6.53%다. 전년 동기 대비 0.13%포인트(p) 하락했다. 금리 상단은 0.36%

p 내린 연 11.45%로 집계됐다. 고신용 차주가 유입된 만큼 낮은 금리를 적용한 것이다.

통상 저축은행 아파트 담보대출을 이용하면 8억원 한도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70~80%까지 융통할 수 있다. 일시적으로 자금이 쪼들릴 경우 1억원 미만을 빌리는 '급전창구' 역할을 하는 것.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 대출 수요가 전반적으로 쪼그라들었다. 대환대출을 제외하면 개인신용대출은 거의 나가지 못하고 있다”라며 “차주와 저축은행 모두 부담이 적은 주택담보대출을 찾는 사업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귀띔했다.

아파트 담보대출뿐 아니라 저축은행 신용대출을 찾는 고신용 차주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달 SBI저축은행의

'SBI퍼스트 대출'을 살펴보면 신용점수 900점 초과 차주의 취급 비중은 54.75%로 절반을 넘겼다. 지난 2022년 동기 대비 43.05%p 치솟았다. 웰컴저축은행의 '뱅크론'을 찾은 신용점수 800점 이상 차주 비중은 같은 기간 4.09%에서 7.25%p 상승한 11.35%를 기록했다.

저축은행은 한동안 고신용차주 확보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PF연체에 따른 대손충당금을 한 푼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다. 우선 과제는 부동산경·공매 활성화와 부실채권(NPL) 매각이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중저신용차주에게 대출을 내주기 위해선 적어도 지난 2021년 상반기 수준의 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라며 “연체율과 유동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 과제인 만큼 구체적인 시기는 미지수다”라고 말했다. /김정선기자 kimsan119@

DGB금융그룹 iM청춘 FESTA 후원금 전달식

DGB금융그룹은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에서 청년들을 응원하고 지역에서 더욱 즐거운 일상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iM청춘 FESTA(페스타)'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오는 29일 대구 달서구 소재 야외음악당에서 개최되는 'iM청춘 페스타'는 ESG 관련 청년 사업가들의 전시·체험과 청년들의 청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경험·학습 등 다양한 부스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지역 청년들을 위한 인기 가수의 문화공연도 함께 마련됐다. /안송진 기자

봄 분양시장 본격 개장... 전국 2.4만가구 쏟아

포항 강동 '에코델타시티 아테라' 부천 '원종지구 휴먼빌' 등 주목

올해 1~2월 숨고르기를 진행한 아파트 분양시장이 3월을 맞아 본격적인 개장을 앞두고 있다. 여전히 서울에서는 분양 물량이 없지만 전국 각지에서 건설사들의 마수걸이 분양 단지들이 공급될 예정이다.

11일 부동산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 따르면 이달 분양 예정인 단지는 전국 23곳에서 2만4415가구다. 1~2월 분양 실적인 7958가구의 3배 안팎에 달하는 규모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마수걸이 분양 단지의 경우 각 건설사의 한해 사업을 알리는 만큼 입지가 우수하고 상성

을 갖춘 곳으로 선정한다”며 “올해는 탄핵정국과 분양시장 침체가 맞물리며 작년 대비 분양 물량이 적었지만 이 같은 분위기는 점차 해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대엔지니어링·포스코이앤씨는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일원에서 '힐스테이트더샵 상생공원 1단지'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35층, 전용면적 84~178㎡ 총 999가구 규모다. 단지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진행돼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포항시청을 중심으로 형성된 각종 인프라와 영일대 호수공원 등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의 올해 마수걸이 분양 단지이면서 동시에 경북 포항시의 첫 분양 단지다. 포항시 최초로 조

·중식 서비스(유료)도 예정하고 있다.

금호건설은 부산 강서구 강동동 일원에 건립되는 '에코델타시티 아테라'를 올해 마수걸이로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16층, 전용면적 59~84㎡ 총 1025가구 규모다. 민간참여형 공공분양 주택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며, 에코델타시티 중심 입지를 갖췄다.

일신건설은 경기도 부천시 원종동에서 '부천 원종지구 휴먼빌'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15층, 전용면적 46~59㎡ 총 255가구다. 일신건설이 올해 내놓는 첫 분양 단지로 부천 원종 공공택지지구 내에 위치하며 원일초, 원종고가 가깝고 오정구청 등을 걸어서 이용 가능하다. /안상미 기자 smahn1@

잘 나가는 기아 EV3... 테슬라 '바짝'

소형 EV 중 최고수준 경쟁력 갖춰 글로벌 대리점, 머스크 도발 마케팅 기아 "본사와는 아무런 연관 없어"

기아 노르웨이 대리점에서 EV3 홍보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도발하는 마케팅을 선보였다. 글로벌 시장에서 기아 EV3 판매량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 테슬라 판매량은 감소하는 상황에서 신경전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르웨이 공식 대리점(대리점)은 기아의 소형 전기차 'EV3' 홍보를 목적으로 일론 머스크를 저격했다. 대리점은 EV3 좌측 후미등쪽에 'I BOUGHT THIS AFTER ELON WENT CRAZY(일론 머스크가 미친 뒤 구매하는 차)'라고 쓰여진 차량 광고를 선보였다. 대리점은 해당 광고를 이달 초부터 노르웨이 주요 신문 및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게재했다.

이를 본 머스크는 자신의 X(구 트위터) 계정을 통해 "They really did that? (그들이 정말 그걸요?)"라고 적으면서 신경전을 펼쳤다.

지난 몇 달 동안 논란이 되고 있는 머스크의 발언, 비즈니스 결정, 정치적 견해 등을 본 테슬라 소유주들 사이에서는 머스크를 비판하는 대리점의 흥



기아 노르웨이 대리점이 일론 머스크를 도발하는 홍보 사진을 게시했다. / 일론 머스크 X 캡처

보가 인기를 끌고 있다. 머스크가 발끈한 이유는 최근 부진한 테슬라 판매량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1월 중국을 제외한 세계 각국에 차량 등록된 전기차를 분석한 결과, 폭스바겐 그룹이 테슬라를 제치고 판매량 1위에 올랐다. 폭스바겐 그룹은 전년 대비 68.5% 증가한 8만2000대 판매량을 기록한 반면 2위를 기록한 테슬라는 전년 동기 대비 14.7% 감소한 5만7000대를 판매했다.

특히 유럽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45.9%, 북미에서는 2.1% 감소한 것

으로 나타났다. 현대자동차그룹은 3위를 차지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8.4% 성장한 약 3만7000대의 전기차를 판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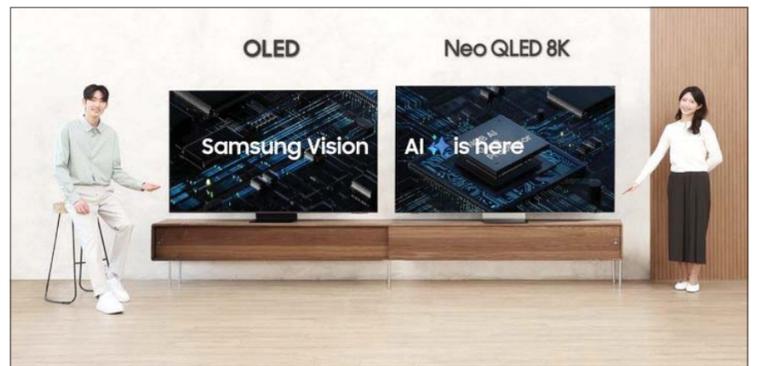
또한 테슬라의 올해 1월 유럽 31개국의 전기차 신규등록 대수는 9945대로, 전년 동기(1만8161대)와 대비 45.2% 급감했다. 같은 기간 기아는 26.2% 증가한 7944대를 판매했고 그중 EV3는 5005대가 팔리며 월간 기준 최다 판매를 기록했다.

기아 EV3는 소형 전기차 라인에서 최고 수준의 가격·상품 경쟁력을 갖췄다. 유럽 인증 기준 1회 충전 시 605km의 주행 가능 거리와 3만 유로(약 4496만 원)대 판매 가격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반면 테슬라 모델Y의 경우 가장 저렴한 후륜구동 제품 시작가는 4만4990 유로(약 6525만 원), 1회 충전 시 609km 주행가능하다.

송호성 기아 사장은 '2025 기아 EV 데이'에서 "전기차 캐즘 등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지만 전동화를 향한 확고한 신념으로 시장 트렌드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기아 관계자는 "이번 일론 머스크 도발 홍보는 본사 마케팅이 아닌 기아 노르웨이 대리점의 자체 마케팅으로 본사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말했다. /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삼성전자 모델이 2025년형 AI TV 신제품 'Neo QLED 8K(85QN990)'와 'OLED(83SF95)'를 체험하고 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 AI TV 신제품 사전판매 돌입

무타공 솔루션 등 할인 혜택 제공

삼성전자가 12일부터 2025년 AI(인공지능) TV 신제품의 사전 판매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전 판매는 Neo QLED?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삼성전자는 올해 Neo QLED 제품의 AI TV 모델군을 7개(QNF990?900?95?90?85?80?70)시리즈로 확대했다. 또 올레드 TV도 기존 10개에서 14개 제품으로 선택을 넓혔다.

올해 신제품은 다양한 신규 AI 기능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홈 인사이트'는 사용자의 생활 패턴과 기기 사용 이력, 집안 현재 환경을 고려해 ▲부재 중 기기 전원 끄기 ▲오리 중 주방 후드 켜기 등의 기능을 추천한다.

또 '홈 모니터링' 기능은 집안의 이

상 움직임을 감지해 실시간 알람을 제공하며, 'AI 버튼'이 추가돼 유사 프로그램 추천 등 콘텐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클릭 투 서치'를 바로 실행할 수 있다. 시청 중인 콘텐츠에 대한 '실시간 번역(Live Translate)' 기능도 제공한다.

Neo QLED 8K(QNF990)는 '3세대 AI 8K 프로세서'가 탑재돼 콘텐츠에 최적화된 화질과 사운드를 구현한다. 또 여러 TV 주변 기기들을 TV에 연결할 수 있는 '무선 원커넥트 박스' 솔루션을 새롭게 적용했다.

삼성전자는 이르면 내달 신규 AI 기능이 탑재된 QLED 신모델도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사전 구매한 고객에게 '무타공 솔루션' 등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Neo QLED 8K(QNF990) 98형 기준 최대 450만 포인트를 적립해준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SK에너지, 캐세이퍼시픽항공 SAF 공급

(지속가능항공유)

홍콩시장 진출... 아태 공략 속도 "글로벌 SAF 공급망 구축해 갈 것"

SK에너지가 국내 정유사 중 처음으로 홍콩 국적항공사에 지속가능항공유(SAF)를 대량으로 공급한다.

SK에너지는 지난 10일 홍콩 국적항공사인 캐세이퍼시픽항공과 오는 2027년까지 2만톤 이상의 SAF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캐세이퍼시픽항공은 지난해 11월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항공기에 SK에너지가 공급하는 SAF를 넣기 시작했다. 양사는 앞으로 SAF 사용 노선을 계속해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이로써 SK에너지는 지난 1월 유럽에 SAF를 수출한 지 2개월여만에 홍콩 최대 민항사와 안정적인 SAF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올렸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국내 정유사 수출물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거점 시장이다.

특히 홍콩 책략국국제공항은 지난해 여행객수에서 전세계 5위를 기록하는 등 아태 지역의 주요 환승 허브로 기능해 왔다. 이에 따라 SK에너지는 이번 공급 계약을 계기로 아태 지역 SAF 시장 공략에 한층 속도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SK에너지가 대량 생산체계를 갖춘 것이 일단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SK에너지는 지난해 9월 연산 10만톤 수준의



(왼쪽부터) SK에너지 이영철 마케팅본부장, 캐세이퍼시픽항공 알렉스 맥고완 운영 및 서비스 제공 최고 책임자가 지난 10일 홍콩 캐세이퍼시픽항공 본사에서 SAF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저탄소 제품 대량 생산체계를 갖추고 코프로세싱 방식으로 SAF 상업생산에 착수했다. 코프로세싱은 기존 석유제품 생산 공정 라인에 별도의 바이오 원료 공급 배관을 연결해 SAF와 바이오나프사 등 저탄소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이다.

글로벌 SAF 수요는 지난 2021년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오는 2050년까지 항공 업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50%까지 감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

유럽연합(EU)은 올해부터 2%의 SAF 혼합 사용을 의무화했고 2030년에는 6%, 2050년에는 70%까지 의무화 비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미국은 2050년까지 항공유 사용 전량을 SAF로 대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2027년부터 국내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SAF 혼합을 의무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장 조사기관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에 따르면 전세계 SAF 시장은 2024년 약 17억달러(약 2조5000억원)에서 2034년 약 746억달러(약 108조 9600억원)까지 연평균성장률(CAGR) 46.2% 수준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SK에너지 이영철 마케팅본부장은 "국내외 SAF 정책 변화와 수요 변동 등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캐세이퍼시픽항공을 비롯한 다양한 전략적 파트너사들과 협력함으로써 안정적인 글로벌 SAF 공급망을 구축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BMW코리아, '뉴 iX2 eDrive20' 출시

'M 스포츠' 단일 트림... 6470만원

BMW 코리아가 BMW 최초의 순수 전기 스포츠 액티비티 쿠페(SAC) '뉴 iX2 eDrive20'을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BMW 뉴 iX2는 우아한 쿠페형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이 실루엣과 역동적인 외관이 돋보이는 독창적인 디자인에 친환경 순수전기 파워트레인을 탑재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BMW의 최신 운영체제인 BMW 오퍼레이팅 시스템 9(이하 BMW OS 9)을 적용해 최상의 디지털 경험을 제공한다.

뉴 iX2의 전면부에는 날렵한 디자인의 어댑티브 LED 헤드라이트와 고유의 무늬가 들어간 BMW 키드니 그릴이 어우러져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하단에 대형 공기흡입구를 장착해 더욱 과감한 인상을 연출한다.

후면부까지 유려하게 내리뻗은 지붕선은 리어 스포일러와 조화를 이뤄 BMW SAC 특유의 우아한 쿠페형 실루엣을 완성했으며, 19인치 더블 스포크 휠과 M 전용 사이드 스커트를 장착해 역동적인 감성을 더했다.

뉴 iX2의 실내에는 10.25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10.7인치 컨트롤 디스플레이가 조합된 BMW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으며, 변속 레버와 컨트롤 패널이 통합된 플로팅 암레스트가 새롭게 적용되어 넓어진 공간 효율과 미래지향적 디자인을 자

랑한다.

뉴 iX2 eDrive20에는 BMW의 최신 5세대 전동화 파워트레인 시스템이 적용되어 강력한 주행 성능과 높은 효율성을 동시에 제공한다. 전문에 탑재된 싱글 전기 모터는 최고출력 204마력, 최대토크 25.5kg·m를 발휘하며,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8.6초 만에 가속한다. 64.7kWh(Net) 용량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장착되어 1회 충전 주행 거리는 350km이며, 전비는 4.8km/kWh이다. 완속 충전은 최대 11kW를 지원하고 최대 130kW까지 가능한 급속 충전으로 10~80% 충전에는 약 29분 정도 소요된다.

주차 보조 시스템은 '파킹 어시스턴트 플러스'도 장착됐다. 차량 스스로 주차 공간을 인식하고 주차를 수행하는 주차 보조 어시스턴트, 최대 50m까지 지나온 길을 기억하여 돌아가는 후진 어시스턴트, 차량 주변을 360도로 살펴볼 수 있는 서라운드 뷰, 3D 뷰 등이 포함된다.

BMW OS 9를 적용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직관적인 기능 제어와 풍부한 디지털 경험을 모두 선사한다. T맵 기반의 한국형 BMW 내비게이션을 기본 탑재해 실시간 최신 지도 및 교통 정보는 물론 배터리 충전량까지 고려해 최적의 경로를 안내한다.

뉴 iX2 eDrive20는 M 스포츠 패키지로 출시되며, 가격은 6470만원(부가세 포함)이다.

/이승용 기자

탄소중립 실현·신성장 동력 확보 정유업계 ‘블루수소’ 전환 총력전

2030년 글로벌 시장 550조 전망
국내 업계, ‘수소경제 전환’ 박차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정유사들이 탄소중립 실현과 신성장 동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 ‘블루수소’에 주목하고 있다. 기존 정유 인프라와 기술력을 활용해 ‘친환경’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탈탄소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다.

11일 시장조사업체마켓앤마켓에 따르면, 2030년 글로벌 수소 시장 규모는 약 4110억달러(약 5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전 세계 수소 생산의 약 90%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그레이수소’다. 반면, ‘블루수소’는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해 탄소 배출을 최소화한 친환경 수소다. 궁극적으로는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물을 전기 분해해 생산하는 ‘그린수소’가 가장 친환경적이지만, 현재 기술 수준과 경제성을 고려할 때 블루수소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된다.

이에 국내 정유업계는 수소 생산부터 유통, 충전 인프라 구축까지 밸류체인 전반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며, 수소 경제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SK인천석유화학 공장에 액화수소플랜트를 건설하고, 정유 공정에서 발생하는 그레이수소(부생수소)를 활용해 연간 3만톤의 액화수소를 생산하고 있다. 최근 인천 공장의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효율을 89%까지



에스오일 울산공장. /에스오일



SK E&S 인천 액화수소플랜트 전경. /SK이노베이션 E&S

**SK이노 CCUS기술효율 89%
연간 블루수소 생산량 3.5만t**

HD현대오일뱅크

**‘수소 드림 2030 로드맵’ 실행
서산 연간 생산능력 25만t 확대**

**에스오일 ‘CCUS 2.0’ 상용화
울산공장 탄소저감율 62%로**

개선해 연간 블루수소 생산량을 3.5만 톤으로 늘렸으며, 생산원가를 kg당 2.8달러까지 낮췄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블루수소 생산원가는 kg당 2.5~3달러로, kg당 6.8달러 수준인 그린수소보다 경제성이 높다.

HD현대오일뱅크는 ‘수소드림(Dre

am) 2030 로드맵’에 따라 충남 서산시에 연간 약 20만 톤 규모의 수소 생산 설비를 운영하고 있다. ‘수소 드림 2030 로드맵’은 HD현대 계열사들이 오는 2030년까지 육·해상에서 수소의 생산·운송·저장·활용까지 밸류체인을 구축하는 HD현대그룹의 미래 성장 전략이다.

GS칼텍스는 수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CCUS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화학연구원과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사업 협력 및 전략적 제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전라남도 및 여주시와도 CCU 메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를 바탕으로 여수산단에서 기술 연구와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정유업계의 블루수소 전환이 단순한 친환경 투자가 아니라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분석했다. 한 에너지 관련 연구원은 “전통적인 정유 사업만으로는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지금은 블루수소를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린수소까지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통해 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원의 발전 비중을 2050년까지 13.8~21.5%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월에는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CCUS법)을 제정해 2030년까지 소규모 실증기술, 2050년까지 대규모 실증기술 개발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북서부 달튼에서 열린 LX판토스 물류센터 인수계약 체결식에서 (앞줄 왼쪽 3번째부터)해양진흥공사 윤상호 본부장, 이용호 LX판토스 대표, 피터 도세 Dossche Holdings CEO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X판토스

LX판토스, 美 조지아주 물류센터 인수

2개 동, 부지면적 축구장 43개 크기
美 물류시장 입지 강화, 추가 공략

LX판토스가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대형 물류센터를 약 1700억원에 인수한다. 이를 통해 미국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시장 추가 공략에 나선다.

LX판토스는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북서부 달튼에서 물류센터 인수계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LX판토스가 인수하는 물류센터는 부지면적만 축구장 43개 크기인 30만 4769㎡(9만2193평)에 달하며, 2개 동으로 이뤄진 신축 상용물류센터다.

이번 물류센터 인수는 LX판토스와 한국해양진흥공사의 합작 투자로 진행했다.

해진공의 금융지원을 바탕으로 국내 물류기업들이 해외 주요 거점에 위치한 물류센터를 자가화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정책인 ‘글로벌 거점항만 구축 전략’ 일환이다.

LX판토스는 신규 물류센터를 기반으로 미국 내 물류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자가 물류센터의 강점을 활용해 LG

전자, 한화큐셀 등 현지 핵심 고객사를 중심으로 물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한국계 및 글로벌 제조사를 타겟으로 신규 고객을 적극 유치할 예정이다.

실제로 물류센터가 위치한 조지아주를 중심으로 자동차, 이차전지 관련 제조사 및 협력사 등 140여 국내 기업이 진출해 있어 향후 우리 기업들의 미국 내 물류 공급망 거점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된다.

조지아주는 항만(사바나항)과 철도(애플래치아터미널), 공항(애틀랜타공항) 등을 통해 미국의 물류 허브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물류센터가 위치한 달튼(Dalton)은 미국 남부와 중동부를 연결하는 핵심 입지의 도시로 꼽힌다. 육상, 철도와 연계 시 미국 전역으로 1~2일 내 수배송이 가능하며, 인근 사바나항은 미국 4대 항만 중 성장률이 가장 빠르다.

최근 LX판토스는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을 전략지역으로 설정하고 활발하게 물류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지난달 글로벌 6위 선사인 ONE(오션네트워크 익스프레스)와 합작법인 ‘박스링크스(Boxlinks)’를 설립해 미국 인터모달 사업에 진출한 바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기관·기업 투자 늘려야 벤처 생태계 살아”

김학균 한국VC 협회장, 기자간담회
“코스닥·벤처펀드 투자 확대 위해
관계부처에 정책적으로 건의 계획”

“기관과 기업에 대한 투자가 소극적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이다. 기관과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히 이뤄져야 벤처 생태계 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

김학균 한국벤처캐피탈(VC) 협회장은 11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파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벤처 생태계 성장을 위해 정책적인 부분은 관계부처와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코스닥, 벤처펀드에 기업과 개인들이 투자할 수 있게 관계부처에 정책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며 “기관과 기업에 대한 투자가 소극적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이다. 기관과 기업 투자가 활발히 이뤄져야 벤처생태계 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벤처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회수시장의 유동성 공급과 시장 확대라고 강조했다.

유동성 공급에 대해서는 “2018년에 민간, 금융, 정부가 함께 3000억 규모 코스닥 펀드를 조성한 사례가 있다. 당시 2등 생태계를 만들어낸 바 있다. 이제는 1등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VC가 코스닥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회장은 이정도 펀드로 현재 코스닥이 겪고 있는 자금 경색 문제를 풀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회장은 “코스닥 시가총액을 300조 원으로 봤을 때 3000억 원 규모의 펀드는 0.1% 수준이다. 부족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은 협회 내 분과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구축할 것”이라고 전했다.

회수시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김 회장은 “우수 창업자들이 창업하고 VC가 펀드를 통해 투자한 후 투자금이 회수되고 이를 재투자하는 등 기업들은 이 같은 성공스토리를 만들어가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벤처캐피탈이 코스닥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방안도 관계부처에 건의

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기관투자자의 코스닥 진입이 어려울 경우 코스닥 상장을 직접 키워낸 벤처캐피탈이 다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협회장은 전일 회장이 추진해온 퇴직연금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퇴직연금 개념이 안정된 자산운용을 피하면서 수익률이 크지 않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고정관념을 깨는데 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벤처펀드는 수익률이 좋고 위험한 대상이 아니고 안정된 투자 대상임을 설득할 수 있다면 좋은 시너지를 도출할 수 있을 것 같다. 가능하면 임기 내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회장은 지난 2000년 LG벤처투자(현 LB인베스트먼트)에 합류해 벤처투자업계에 입문했으며 IDG벤처스 코리아와 한화인베스트먼트, 센트럴투자파트너스(대표), 퀴텀에쿼티파트너스 코리아(대표)를 거쳐 2017년부터 현재까지 퀴텀벤처스 코리아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

SK네트웍스, 퀄컴과 맞손… AI사업 강화

온디바이스 AI 새 사업모델 구축 전망

SK네트웍스가 퀄컴 테크놀로지스 Inc.와 손잡고 인공지능(AI)사업 강화에 나선다.

SK네트웍스는 퀄컴과 협업을 통해 본사 및 자회사 등 보유 사업에 퀄컴 사물인터넷(IoT) 솔루션을 접목하고 AI 기반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양한 영역에서 온디바이스 AI 중심의 새로운 사업 모델 구축이 이뤄질 예정이다.

퀄컴은 SK네트웍스에 온디바이스 대형언어모델(LLM)을 지원하는 ‘퀄컴 드래곤wing QCS6490’ 등 IoT 솔루션을 제공할 방침이다. 퀄컴 드래곤wing QCS6490은 산업 및 상업용 IoT를 위한 고성능 SOC 솔루션으로 로봇, 드론, 게이트웨이, 태블릿, 키오스크 등 다양한 IoT 애플리케이션에 최적화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을 전개하며 AI 연계 사업모델을 접목 중인 SK네트웍스 특성에 맞춘 시너지가 창출될 것으로 회사측은 기대했다.

회사는 본사 및 자회사들의 퀄컴 기



최성환 SK네트웍스 사업총괄 사장(왼쪽)과 권오형 퀄컴 아태지역 총괄 사장 겸 본사 수석 부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네트웍스

술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우수한 IoT 솔루션을 활용해 세계 최고 수준의 AI 성능과 보안성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글로벌 기술·투자업계 전문가 네트워크인 하이코시스템을 기반으로 확보한 역량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진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성환 SK네트웍스 사업총괄 사장은 “글로벌 기술 전문성을 지닌 퀄컴과 파트너십을 맺게 돼 AI 기업으로서 깊이와 진화속도를 더할 수 있게 됐다”며 “SK네트웍스의 제품, 서비스에 AI를 접목해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인류의 내일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알뜰폰 + 기가WiFi 인터넷 + UHD TV 결합 혜택

통신비 다이어트

지금 받고 있는 혜택에 만족하세요?
바로 비교해봐도 **70만원** 손해!



LG헬로비전 기가라이트500Mb + UHD뉴베이직 TV + 7기가 모바일 무제한 요금제 결합
K사 베이직500Mb 인터넷 + 266채널 동급 TV + 5기가 모바일 무제한 요금제 결합
※인터넷/TV 36개월 약정 기준 ※VAT포함, STB임대료 별도

LG헬로비전 상담문의
1855-1094

中, 연이은 AI 혁신 속 개인정보 보호·저작권 위반 등 한계

딥시크 데이터 유출 정황 논란
韓, 서비스 중단... 美, 금지 고려
통이완상, 이미지 무단 학습 의혹
어니-빌지, 中 정보통제로 검열

‘신(新)AI 4대 천왕’을 필두로 한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들의 혁신이 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중국은 연일 세계적 수준의 AI 모델들을 쏟아내며, 글로벌 AI 시장에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강력한 존재감을 확보했다. 그러나 중국발(發) AI는 여전히 개인정보 보호 인식 부족, 정부의 강력한 정보 통제, 스타트업이 직면한 기술적 한계 등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11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수십억 달러의 가치를 인정받은 중국 기업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

중국 AI 기업의 정점에는 1월 등장해 ‘스푸트니크 쇼크’로 평가 받았던 딥시크(Deepseek)가 있다. 딥시크의 AI 모델 ‘딥시크 R1’은 6700억개의 매개변수



ChatGPT에 의해 생성된 중국 AI 모델들의 압도적인 성능 이미지.

를 갖춘 대규모언어모델(LLM)로 오픈 AI의 ‘GPT-4o’에 준하는 성능을 가졌으나 개발에 든 비용은 18분의 1에 불과해 알고리즘 최적화의 중요성을 전세계에 떨쳤다. 딥시크의 기업가치는 최소 10억 달러(1조4500억원)에서 최대 1500억 달러(217조8500억원)에 달한다.

딥시크를 이은 중국의 ‘신AI 4대 천왕’은 수십억 달러의 기업가치를 기록한 중국의 주요 AI 스타트업 4곳을 말

하는데, ▲문샷AI(33억달러) ▲즈푸AI(28억달러) ▲바이훤(28억달러) ▲미니맥스(25억달러)가 이에 해당한다.

이밖에 알리바바의 ‘Q1 2.5-맥스’, 바이트댄스의 ‘더우바오-1.5프로’ 등 세계적 수준으로 인정받은 AI 모델들이 수도 없이 많다.

그러나 중국계 기업들의 AI는 개인정보보호, 저작권, 정보통제 문제 등 여러 한계를 노출하며 ‘정부 리스크’를 드

러내고 있다.

지난 7일(현지시간) 외신은 백악관이 국가 안보를 우려해 정부 기기에서의 딥시크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딥시크가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 내 서버에 저장하는 점, 수집된 데이터 활용 방식 및 접근 권한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들어 연방정부 기기에서의 딥시크 앱 사용 금지를 고려 중이다.

우리 정부도 딥시크 앱의 국내 신규 서비스를 지난달 15일부터 잠정 중단한 바 있다. 지난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데이터 유출 정황을 이유로 국내 서비스를 중단시켰고,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비롯한 국내 모든 앱 마켓은 딥시크를 퇴출시켰다.

‘통이완상’ 등 생성형 AI 모델들도 전세계적 논란거리인 학습 데이터 세트의 저작권 논란에 직면했다. 통이완상은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개발한 AI 이미지 생성 모델로 다양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 통이완상은 모델 훈련을

위한 학습 과정에서 알리바바 등 주요 자체 플랫폼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학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중국 법원이 AI가 생성한 이미지가 인간의 지적 투입과 창의성을 반영한다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결하면서 창작물 논란까지 직면했다.

중국 정부의 정보 통제 또한 중국 AI 모델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바이두가 개발한 생성형 AI 모델 ‘어니-빌지(ERNIE-VILG)’는 중국 문화에 관해 특화했으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단어는 모조리 검열 시스템에 포함시키고 이를 해외에서 이용할 때도 적용하고 있다. 딥시크 또한 관련 문제를 안고 있다.

IT업계 관계자는 “중국 AI 모델들의 성장 속도는 충격적”이라며 “중국 정부의 인제 육성부터 인프라에 이르기까지 전폭적 지원 아래에서 성장 중이라는 점에서 우리 정부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KT,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4명 재선임 논의 “용인세브란스병원서 PASS 앱 사용해요”

오는 31일 주주총회 개최 예정
연간 재무제표 승인 안건 등 상정

KT가 오는 31일 개최될 주주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된 사외이사 4명의 재선임을 논의할 예정이다.

KT는 10일 주주총회 상정 안건 공시를 통해 현직 사외이사인 곽우영·김성철·이승훈·김용현 후보자의 재선임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김성철·이승훈·김용현 후보자는 감사위원으로도 추천되었다.

곽우영 후보자는 LG전자와 현대자동차에서 이동통신 단말기, 네트워크 장비 및 커넥티드카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ICT 전문가다. 2023년 6월부터 KT 사외이사로 활동하며, KT의 AIC

T 기업 전환을 지원하는 한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기업 경영의 문제점을 사전에 조치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김성철 후보자는 ICT 산업의 리스크 및 규제 전문가로, 통신 사업 전략, 정부 규제, 산업 변화 등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진행해왔다. 그는 국내외 정부 및 업계에 ICT 비즈니스 생태계 변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을 제시하며 통찰력을 발휘해왔다.

이승훈 후보자는 UBS 및 JP모건 한국 리서치센터장을 역임하며, 아시아머니가 선정한 한국 주식시장의 최고 애널리스트로 평가받은 금융 전문가다. 2023년 6월 말부터 KT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활동하며, KT의 투자 타당성 분석과 재무 관점에서의 사업 포트폴

리오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용현 후보자는 대전지방법원장과 광주고등법원장을 역임한 법률 전문가다. 2022년 3월부터 KT 사외이사로 활동하면서 내부통제 시스템 정비 및 컴플라이언스 강화에 기여하여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주주총회는 31일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KT연구개발센터 2층 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간 재무제표 승인 ▲분기배당 배당 기준일 변경 및 회사채 발행 의결 방식 변경을 포함한 정관 개정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등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통신3사,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도입

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에 간편인증 앱 ‘패스(PASS)’를 통한 모바일 운전면허·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용인세브란스병원에서는 PASS 앱을 통한 신분확인이 가능해졌다. 지난해 5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본인인증이 의무화되면서 병원 담당자는 육안으로 환자의 실물 신분증이나 모바일 신분증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용인세브란스병원에 내원한 환자는 용인세브란스병원에서 접수·진료·수납 시 PASS 앱에서 신분 확인 QR코드를 생성 후 키오스크에 스캔하면 즉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의 정보가 병원에 전달된다.

PASS 신분증 확인서비스 위젯을 휴대전화 홈화면에 미리 설치하고, 위젯



모델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에서 간편인증 앱 패스(PASS)를 통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및 주민등록 확인서비스를 이용하는 모습. /KT

을 클릭해 PASS 신분확인 QR코드 화면을 바로 띄워 간편하게 활용할 수도 있다.

국내 병원에서 본인인증을 할 때 PASS 신분증 확인서비스 QR 스캔 방식을 적용한 건 용인세브란스병원이 처음이다. QR 스캔 방식은 개인정보 수거 입력에 따른 오류를 줄이고, 병원 담당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김서현 기자

홍범식 “구성원 성장에 기여한 CEO로 기억되고 싶어”

(LG U+ 사장)

취임 100일 맞아 첫 ‘타운홀미팅’

홍범식 LG유플러스 사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첫 타운홀미팅을 열고 구성원들과 소통에 나섰다.

홍범식 사장은 지난 10일 서울 용산사옥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취임 100일 소감과 함께 본인이 지향하는 밝은 세상의 정의와 실천 방법을 공유했다.

이번 타운홀미팅은 별도의 사회자나 대본 없이 홍 사장이 직접 90분간 진행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홍 사장은 “회사나 개인이 성장하려면 동기, 역량, 계기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LG유플러스 구성원들은 이미 성공을 향한 열망(동기)과 이를 실현할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홍범식 LG유플러스 사장(가운데)이 10일 LG유플러스의 서울 용산사옥에서 타운홀미팅을 가진 뒤 임직원들과 셀카를 촬영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이어 “잠재력을 폭발시키려면 계기가 필요한데, 그것을 만드는 것이 CEO인 제 역할”이라고 강조하고 “고객들의 높아진 기대 수준에 맞춰 기준을 높이고, 그 이상의 감동을 창출할 수 있는 부

분에 투자를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구성원들에게는 단순히 1등하는 회사에 다니는 것보다, 내가 하는 일이 ‘밝은 세상’을 만드는 데 얼마나 기여하는지가 더 중요한 가치”라고 말했다. 홍 사장은 “밝은 세상”을 ▲(나은) 고객이 필요로 하는 가치를 제공하고 ▲(다른) 고객이 감동할 수 있는 차별적 경험을 선사하며 ▲(바른) 고객과 파트너에게 참여와 공감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홍 사장은 CEO로서의 새로운 꿈도 직원들에게 공유했다. 홍 사장은 “구성원들이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성장하는데 기여한 CEO로 기억되고 싶다”며 “LG유플러스 직원이라면 어디서든 인정받을 수 있는 인재로 성장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삼성SDS-카이스트 ‘에이머’, KpqC 선정

(한국형 양자내성암호)

국내외 기준에 맞게 표준화 추진

삼성SDS는 카이스트(KAIST)와 개발한 ‘에이머(AIMer)’ 알고리즘이 한국형 양자내성암호(KpqC) 국가 공모전에서 최종 알고리즘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양자내성암호(PQC)란 양자컴퓨터가 기존 암호화 체계의 보안을 무력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사용자 데이터를 한층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술로, 이번 공모전은 양자컴퓨터 시대에 대비한 한국형 양자내성암호를 확보하기 위해 개최됐다.

삼성SDS는 암호 알고리즘 설계와 구현을 맡았으며, KAIST는 안전성 분석을 담당했다. 에이머는 소인수분해와 같은 수학적 난제 기반이 아닌 자체 개발한 일방향 함수 기반의 암호 알고리즘이다. 일방향 함수 방식은 한번 암호화하면 다시 복원하는 것이 불가능해 양자컴퓨팅 환경에서 수학적 난제 방식보다 안전하다고 알려졌다.

선정된 알고리즘은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범국가 양자내성암호 전환 마스터 플랜에 따라 국내외 기준에 맞게 표준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hjk1@

“국민연금 2년 연속 최고성과… 주식·채권 투자집행 속도”

〈기준 포트폴리오 체계 확대〉

작년 운용 수익률 15% 역대최대 해외투자·대체투자 비중 확대 결과 위험자산 효과적 배분 등도 한 몫 연금고갈 공포 상당부분 사라질 듯

2024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은 15%를 기록했다. 역대 최대치다. 시장에서 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해외 투자와 대체투자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용한 결과라 평가한다. 아울러 국내외 자산과 위험자산 등 중장기적 자산 배분이 효과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한 것도 한몫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지난해 어려운 투자환경 속에도 국민연금이 2년 연속 최고의 성과를 낸 것은 국내외 자산의 포트폴리오 다변화, 글로벌 운용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한 우량 투자 기회 발굴과 해외사무소 기능 강화 등 기금운용 인프라를 꾸준히 개선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국민연금이 기금의 위험을 줄이고 운용 능력 확대를 위해 만든 ‘기준포트폴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CIO)이 11일 국민연금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기자들을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리오’체계를 대체투자에서 주식·채권으로 확대한다. 국민의 노후자금이 한층 안정적으로 운용될 전망이다. 연금고갈에 대한 공포도 상당 부분 사그라들 전망이다.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은 11일 국민연금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올해 대

체투자부터 적용하는 기준포트폴리오 체계를 빠르게 안착시키고 이후 주식과 채권으로의 확대 방향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단지침에 해당하는 기준포트폴리오는 70년간 투자방향성을 나타내는 지침 역할을 하게 된다. 기준 포트폴리오에서 전체 위험 수준을 결정하면 이

수준에 맞춰 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 자산군으로 구성된 5년 단위 중기 전략적자산배분(SAA)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간 단위 전술적자산배분(TAA) 계획을 짜게 된다.

‘기준 포트폴리오’가 주식과 채권으로 확대되면 관련 투자 집행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주식과 채권으로 나눠 투자하게 돼 새로운 속성을 가진 투자자산을 편입하기 쉬워진다. 그간 국민연금은 데이터센터, 리츠(부동산 투자회사)처럼 부동산과 주식, 인프라 속성을 모두 가진 자산군에 투자를 집행하기 까다로웠으나 제도 확대로 이른바 ‘회색 지대’에 속한 자산군에 투자를 집행하기 더 수월해진다.

서 CIO는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1200조원을 넘어선 만큼 확대 운용전략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는 세계 연금기금 중 3~4위 수준으로, 5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2040년 1755조원(실질 가치)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본 규모와 국내 시장의 한계를 고려했을 때, 해외·대체투자 비중을 높여

수익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지난해 글로벌 주요 연기금과 비교해도 높은 운용 수익률 15%를 달성했다”며 “현지 투자 정보 수집, 글로벌 운용사 등 주요 기관들과의 관계 구축을 위해 현지 투자 관련 정보와 네트워크가 집중되는 지역에 해외 사무소를 지속적으로 늘려왔다”고 설명했다. 운용직증원과 성과급 지급 체계 개편, 차세대 해외 투자 시스템 구축 등 기금운용 인프라를 꾸준히 개선했다는 부연이다.

국민연금은 전체 운용자산의 해외주식 비중을 2029년까지 55%까지 늘릴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해외주식 비중은 29.9%였으며, 대체투자도 17.1%까지 늘려왔다.

서 CIO는 “장기적으로 해외와 대체투자 비중을 높일 것”이라며 “어려운 투자 환경 속에서도 국민연금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외·대체투자 비중을 꾸준히 확대하고, 국내외 투자 다변화와 위험 분산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NXT 출범 첫 주… 거래액 98% 개미 차지

총 거래액 799억 중 개인거래 782억 기관이 1.58%, 외국인 0.58% 차지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NXT)가 ‘동학개미’에게 자산을 늘리는 새로운 텃밭으로 자리잡고 있다.

11일 NXT에 따르면 지난주(4~7일) NXT의 전체 거래대금은 799억1329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개인 거래대금이 781억9391만원으로 전체의 97.85%에 달했다.

기관이 12억5919만원으로 1.58%, 외국인은 4억6020만원으로 0.58%를 차지했다.

거래 시간별로는 메인마켓(오전 9시~오후 3시20분) 거래대금이 440억9630만원(55.18%)으로 가장 많았다.

애프터마켓(오후 3시30분~8시)과 프리마켓(오전 8시~8시50분) 거래대금은

각각 190억3332만원(23.82%), 167억80367만원(44.82%)이었다.

프리·애프터마켓의 합산 거래대금 비중은 전체의 44.82%였다.

NXT에 상장된 10개 종목의 전체 거래량은 KRX 856만697주, NXT 297만6145주로, KRX 대비 NXT 거래량 비중은 34.77%였다.

거래대금 기준 KRX(2362억9662만원) 대비 NXT 비중은 33.82%였다.

종목별 거래량은 동국제약이 137만9246주로 가장 많았고, 이어 YG엔터테인먼트 50만4461주, LG유플러스 50만239주, 에스에프에이 21만296주, 코오롱인더스트리 11만3943주 등 순이었다.

KRX 대비 NXT 거래량 비중이 큰 종목으로는 88.31%의 동국제약을 비롯해 YG엔터(42.29%), 골프존(39.98%) 등이 있었다.

증권가는 출범 첫 주 NXT가 무난히

안착했다는 평가와 함께 향후 성장 가능성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신민섭 DS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기업의 정규장 이후 공시로 인한 대체거래소 이용이 증가할 것”이라며 “시차가 있는 해외 종목과 연관성이 있는 종목에 대한 가격 반영 과정에서 대체거래소에서 가격 반응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최선집행의무에 따라 수수료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며 “투자자 입장에서 대체거래소를 저렴하게 이용할 유인이 발생한다면 대체거래소 점유율이 증가할 여력이 크다”고 예상했다.

미래에셋증권은 NXT 출범을 계기로 커버리지(기업분석) 증권사들의 올헤지 배주주순이익 추경치를 일제히 올렸다. 상향폭은 NH투자증권 5.3%, 한국금융지주 2.0%, 삼성증권 4.3%, 키움증권 6.3% 등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

“변동성 피한 장기투자 TDF가 최적”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 ACE TDF ETF 신규상장 세미나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이사가 투자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어쩌면 미국 시장 기술주의 큰 하락은 시장 변동성을 견디기 힘든 투자자에게 TDF(Target Date Fund, 생애주펀드)에 투자하라는 계시일 수도 있겠다. TDF는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할 기본 투자 상품으로 장기 투자에 최적이다.”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열린 ‘ACE TDF ETF 신규상장 기념 세미나’ 개회사에서 최근 시장의 흐름을 짚고 ‘왜 TDF에 관련 상품에 투자해야하는가’에 대해 언급했다.

“TDF, 생애주기에 맞춰 자산 배분 비용 낮고, 매매편의, 환급성 높은 ‘ACE TDF ETF 시리즈’ 선보여”

그는 젊은 투자자들에게 테크 관련 장기 투자를 권했지만, 변동성이 큰 시장 환경에서 이를 지속하기 어려운 현실을 언급하며 “TDF는 투자자의 생애 주기에 맞춰 자동으로 자산을 배분하는 전략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 발표자로 나선 사람은 김장호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와 강성수 한국투자신탁운용 솔루션담당 상무다. 김 교수는 자산배분 모델을 활용한 투자분석 전문가고, 강 상무는 ACE TDF ETF 포트폴리오 설계를 주도한 인물이다.

세미나에서 김 교수는 “투자의 핵심은 ‘왜 투자하는가(Why)’를 명확히 하는 것”이라며, 고령화 시대 장기 투자 및 자산배분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TDF의 글라이드 패스(Glide Path) 전략이 생애주기별 자산배분에 최적화돼 있다”고 평가했다.

강 상무는 TDF 관련 시장이 성장하

는 이유로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 노후 대비 인식 확대 ▲퇴직금을 운용해야 하는 베이비부머 세대 증가 ▲국내보다 글로벌 투자 관심 증가 등을 꼽았다.

이와 관련해 강 상무는 “이번에 출시한 ACE TDF ETF 시리즈는 TDF와 ETF 장점을 결합해 선보이는 시리즈로 낮은 비용, 매매 편의성 및 높은 환급성과 투명한 자산 내역 확인까지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이어 강 상무는 한투운용의 ‘ACE TDF ETF’는 낮은 비용과 높은 환급성을 갖춘 상품으로, 금을 적극 활용한 자산배분 전략을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한투운용의 경우는 투자자들에게 자체 개발한 장기지분시장가정(LTCMA)을 활용해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있다. 한투운용 TDF 상품들은 미국보다 은퇴 후 소득 감소폭이 큰 한국인의 소득 분포 반영해 주식과 상관관계가 낮고 채권 대비 실질 수익률이 우수한 금을 적극 활용했다는 특징이 있다.

강 상무는 “이번에 출시된 민티지(목표시점) 외에도 다양한 ACE ETF의 추가적인 출시 계획이 있고,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출시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국거래소에는 ‘ACE TDF2030액티브’, ‘ACE TDF2050액티브’, ‘ACE 장기자산배분액티브’ 3종이 신규 상장됐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증권업계 38년… 정상에 오르게 된 비결”

임재택 한양증권 대표 ‘성공, 꿈꾸지 말고 훔쳐라’ 출간

한양증권은 임재택 대표이사가 직접 집필한 인생 경영서 ‘성공, 꿈꾸지 말고 훔쳐라(사진)’를 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1987년 쌍용투자증권(현 신한투자증권)에 입사하며 증권 업계에 발을 디딘 임 대표는 아이엠투자증권 대표이사를 거쳐 2018년 한양증권 최고경영자(CEO)로 부임했다.

책에서 임 대표는 “삶도 경영도 1인치 앞선 전략이 승부를 결정한다”고 강조한다. 인수·합병(M&A) 과정 속에서 겪었던 치열한 경험과 위기의 순간들을 돌아

보며 경영이 단순한 숫자 싸움이 아닌 사람과 철학의 문제라고 말한다. 이 과정에서 얻은 통찰과 교훈을 통해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향성을 제시한다. 어려운 경영학 서적이거나 성공학 개론과는 달리 누구나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쉽고 명징한 문체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춘하추동 4계절로 구성된 독특한 챗터 구성도 돋보인다. 인생의 흐름을 사계절로 비유해 각 단계마다 값진 인생의 메시지가 명징한 언어로 전해진다. 임 대표는 책을 쓴 이유에 대해 “술한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이 길이 내가 걸어야 할 길이라는 굳은 믿음을 갖



고 묵묵히 이겨내니 CEO라는 정상에 오를 수 있었다. 이렇게 삶의 굴곡을 극복하고 정상에 오르게 된 비결을 전하고자 쓴 책이다”라며 “반세기 이상을 열심히 살아가며 스스로 터득한 인생의 이치와 지혜, 성공 코드, 삶의 무기, 전략 등에 대해 담담하게 풀어내고 싶었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서울시, AI·글로벌 스타트업 지원 박차

4대 창업허브 중심 265억 투입... 800곳 육성

성장 잠재력 높은 10개국 선정
AI 스타트업 해외진출 집중 지원
후속지원 통해 실질적 성과 도모
해외거점 늘리고 네트워크 강화

서울시는 국내 스타트업 성장을 위해 올해 4대 창업허브를 중심으로 '창업지원 사업'에 총 265억원을 투입해 약 800개 기업을 선발,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는 체계적 창업지원을 위해 서울 전역에 총 23개의 창업지원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공덕(로봇, AI 등 기술창업 전분야) ▲마곡(정보통신, 나노, 환경, 바이오) ▲성수(ESG) ▲창동(뉴미디어 및 글로벌 SNS 마케팅 등) 등 4개 창업허브는 해외진출 지원, 개방형혁신(오픈이노베이션), 투자유치 등 스타트업 고성장성(스케일업)을 지원하며, 미래 성장동력의 선제적 확보를 위한 특화 거점으로 운영 중이다. 서울시 지원으로 지난해까지 총 907개 스타트업이 해외시장 진출에 성공했으며, 투자유치 1827억원, 기업매출 2384억원, 해외 법인설립 117개사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가속화

시는 기술 경쟁력을 가진 국내 기업이 좁은 내수시장 한계를 넘어 해외로



서울창업허브 공덕 모습

/서울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망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지원을 강화한다. 올해는 약 3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미주·유럽·아시아 등 세계 전역에 약 350개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다.

특히, 올해는 미래 첨단산업의 초점이 AI로 모인 상황에서 AI 스타트업 집중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AI 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10개국을 선정해 AI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단순 1회성 지원에서 벗어나 지원기업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추가 사업화 지원 등의 후속지원도 강화해 후속 투자유치, IPO(기업공개) 등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 해외거점 및 네트워크 구축 확대

스페인, 베트남, 인도, 싱가포르, 독일, 아랍에미리트 등 6개국 7개소에서 운영 중인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 거점'도 8개소 이상으로 확대한다.

올해는 현지 공공기관, 민간 액셀러레이터 등과 협력하여 일본, 태국 등에 해외거점을 추가 구축하고 사무공간 제공, 법률·경영 컨설팅, 법인설립 등 스타트업의 안정적인 현지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럽 혁신 기업들과 우리 스타트업의 산업협력도 추진한다. '창업허브 M+'와 EU Business Hub 프로그램 주관사인 '딜로이트 컨소시엄'과 협업을 통해 유럽 기업과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네트워킹 등을 지원한다. 또한, 에

스토니아 탈린시를 기술 실증 테스트베드로 제공하는 'Testbed in Tallinn'을 통해 유럽지역에서의 기술실증 기회도 확대한다.

CES, 슬러시(SLUSH) 등 해외 스타트업 행사와 교류를 통해 첨단산업에 대한 글로벌 통찰력은 물론 투자유치 및 네트워킹 기회도 제공한다.

◆ 창업생태계 글로벌 개방성 확대... AI 등 미래산업 스타트업 발굴

시는 글로벌 협력과트너와 네트워크 강화, 외국인 창업자 유치, 글로벌 홍보 콘텐츠 강화 등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올해 총 24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오는 9월 열리는 스타트업 축제 '트라이에브리씽'이 스타트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장이 될 수 있도록 글로벌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한다.

해외 유망기업의 서울 창업생태계 유입도 추진한다. 작년 태국 5개 기업에 대해 국내비자 제도 설명 및 창업 컨설팅과 MS 코리아와 밋업 등 시범 프로그램을 추진한 바 있으며, 올해는 태국, 독일 등 현지 거점 중심으로 Barter(바터) 프로그램을 신설, 해외 우수기업의 국내 유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4개 서울창업허브에서 올해 총 132개사의 입주기업을 모집하고, 허브별 특화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건국대

졸업생 특화사업 선정
700명 맞춤형 취업지원

건국대학교(총장 원종필) 대학일자리플러스사업단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5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사업'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졸업 후 2년 이내의 미취업 졸업생과 졸업유예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연간 총 700명을 대상으로 ▲1:1 컨설팅 ▲멘토링 ▲자기주도형 프로그램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건국대는 지난해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시범 사업' 운영 대학으로 선정돼, 미취업 졸업생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취업 프로그램과 상담을 확대 운영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이상원 대학일자리플러스사업단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생과 지역 청년들의 구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지역 거점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여 청년 취업을 제고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

고양시

일산신도시 재건축
주민 설문조사 진행

고양시(시장 이동환)는 일산신도시 내 재건축 사전컨설팅 단지를 대상으로 3월 12일부터 4월 1일까지 주민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재건축을 앞둔 단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맞춤형 정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설문조사 응답률이 높을수록 보다 정확한 데이터 확보가 가능하므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21일 '2024년도 재건축 사전컨설팅 용역(일산신도시)'에 선정된 ▲백마마을 3·4·5·6단지 ▲후곡마을 1·2·5·6단지 ▲강선마을 15·16·17단지 대표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서는 재건축 사업의 개요 및 정비 방향을 안내하고, 주민 설문조사의 방법과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핸드폰을 활용한 전자조사(QR코드)와 서면조사를 병행해 진행된다.

시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 단지의 특성에 맞는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토지이용계획, 건물 배치계획, 사업성 분석, 추정분담금, 공공기여방안 등 다양한 요소를 결정하는 데 활용된다. 또한,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 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재건축 사업의 모범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주민 맞춤형 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양=안성기 기자 ask9990@



인하대와 중국 연태대의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 아카데미 과정 개막식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인하대

인하대-연태대,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 양성

국제 고급 교육과정 공동개설
한중 교류·협력 플랫폼 기대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가 중국 연태대학교와 함께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 아카데미 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11일 인하대에 따르면, 두 대학은 최근 중국 연태대학에서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 아카데미 과정 개막식을 열었다.

개막식에는 인하대 조명우 총장, 김웅희 대외부총장, 연태대 학서광 총장, 왕홍보 부총장 등 학교 관계자들과 채규전 대우중공업 연태유한회사 전 법인장 및 사면공정기계유한회사 전 사장, 권기식 한중도시우호교류협회 회장, 조진훈 연태시 중일한연구원 부원장, 김정호 연태인상공회 회장 등 프로그램 강사진 및 한국과 중국의 리더급 참가생 약 50명이 함께했다.

이번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 아카데미 과정은 인하대와 연태대가 공동

설한 국제 고급 교육과정이다. 한·중 양국 전문가, 학자, 기업인들이 강사진으로 구성돼 글로벌 경제 트렌드, 비즈니스 모델 혁신, 다문화 경영 전략 등을 교육이 이뤄진다.

중국 연태지역은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거점 도시로, 풍부한 자원과 활발한 경제 활동을 바탕으로 외국 기업 유치와 투자 확대를 목표로 하는 친외국 기업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한국 기업의 경제활동이 활발한 지역으로 꼽힌다. 인태대는 이같은 환경을 고려해 지역의 대학인 중국 연태대와 이번 교육과정을 신설하게 됐다.

인하대는 지난 2011년 학생 교류·일반 협정 체결을 시작으로 연태대와 인연을 맺었다.

인하대는 이번 교육과정이 한중 각계 인사와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인들이 교류·협력하는 플랫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현진기자

개봉동 49번지 '신통' 확정
35층 1360가구 대단지로

인근 개발 연계 순환교통 마련
미래 개봉 생활권 핵심지 기대

매봉산 자락과 오류IC·남부순환로 등에 접한 교통의 요충지 '개봉동 49번지 일대'가 35층 내외, 1360여세대 아파트 단지로 다시 태어난다. 향후 예정돼 있는 '신구로선'이 개통되면 '신(新)개봉 생활권' 중심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개봉동 49번지 일대 재개발사업'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역이 가진 교통·문화·자연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면서도 신속통합기획·모아타운 등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주변과의 조화로운 개발계획을 마련했다.

시는 대상지가 미래 개봉 생활권의 핵심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화롭고 지역으로 열린 도시경관 창출 ▲지역 특성을 담은 특화 주거단지 조성 ▲주변 여건 변화를 고려한 교통체계 개편 ▲다양한 동선 및 복합공간 계획으로 생활 편의 향상 등 개발계획에 4가지 원칙을 담았다.

특히 고척로·남부순환로를 중심으로 여러 개발이 예정돼 있는 점을 감안해 대상지 북측 개봉동 20번지 일대 모아타운과 연결되는 남북 관통 도로를 계획하는 순환 교통체계를 마련하



매봉산 자락과 오류IC·남부순환로 등에 접한 교통의 요충지 '개봉동 49번지 일대'가 35층 내외, 1360여세대 아파트 단지로 다시 태어난다. /서울시

는 등 지역간 연결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역 교통체계'를 전면 개편키로 했다. 남부순환로 평탄화 공사 등 기반 시설 변화와 연계해 개봉동 일대 교통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매봉산, 개봉중학교, 저층주거지 등을 아우르는 개봉 생활권의 도시 체계에 어울리도록 영역별 계획을 수립하고 '신구로선' 역세권 예정지인 점을 고려해 용도지역을 '역세권 제2종 7층'에서 '3종'으로 상향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된 개봉동 49번지 일대의 정비계획이 빠르게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lhj@



가성비 좋은 너로 정했다!

대한홍삼 건강백화점 무료 창업 교육

복지 쇼핑몰(온라인) + 건강백화점(오프라인)

- 교육 일정** 2025년 3월 18일(화요일) 오후 2시 ~ 6시
- 교육 정원** 선착순 20명
- 교육비** 전액 무료
- 교육 대상** 전국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주부사원, 직장인, 퇴직자 등
- 교육 목표**
 - 실전교육 전문적인 사례 중심
 - 매출상승 다양한 매출전략 교육
 - 전문양성 성공적인 창업 배출
- 교육 주관** **햇터그룹**
- 교육 강사** 햇터그룹 회장 박광섭 (CEO 35년 경력)

햇터
햇터그룹지주회사

브레인TV
3천만이상 시청자 보유
방송전문기업

BH 대한홍삼
국내5대 브랜드
홍삼전문기업

한삼장홍삼
건강식품 / 용품
유통전문기업

햇터라이프
업계최초 계층형 B2E
E커머스 플랫폼 전문

- 교육 장소** 본사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마산로96, 대륭테크노타운 8차 601호
가산디지털단지역 1호선 11번 또는 7호선 7번 출구에서 600m/9번출구 공사중
- 교육 문의** 햇터그룹 창업아카데미 고객센터 : 1522-7585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목포시, 전국 유일 '문학마을'로 재탄생

총 144억6000만원 투입
김우진, 박화성 등 다수 배출
8인 작가 전시관 탄생 예정



목포시가 전국 유일의 '문학마을'로 새롭게 태어난다.

/목포시

목포 원도심이 근현대 문학의 숨결을 간직한 전국 유일의 '문학마을'로 새롭게 태어난다.

목포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남부권광역관광개발 문학치유 관광루트 연계 명소화사업인 '목포문학마을 조성' 사업에 선정됐다. 이를 통해 한국 근현대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들을 배출한 문학의 고장으로서, 문학자원을 관광자원으로 연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한다.

본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총 144억 6000만 원이 투입되며, 시는 그동안 문학마을 조성과 관련한 종합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올해 부지 매입 등 본격적인 사업을 착수해 2027년 완료할 예정이다.

문학마을이 조성될 목원동 일원은 목포 원도심의 심장이자 마을 자체가 하나의 지붕 없는 문학관이다. 김우

진, 박화성, 차범석, 김현 등 한국 문학을 빛낸 작가들이 태어나거나 창작 활동을 펼쳤던 곳으로, 시는 이 지역을 문학과 관광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변화시켜 문학적 가치와 지역 고유의 역사성을 동시에 살릴 계획이다.

문학마을 조성사업은 ▲골목길 문학전시관 조성 ▲문학마을 디자인 ▲문학플랫폼 구축 등의 사업으로 추진된다.

현재 갯바위문화타운에 있는 목포

문학관이 기존의 김우진(극작가), 박화성(소설가), 차범석(극작가), 김현(문학평론가)의 4인 복합문학관에서 개인별 문학전시관으로 탈바꿈해 목원동으로 옮겨온다. 더불어 김지하(시인), 최하림(시인), 천승세(소설가), 황현산(문학평론가) 등 목포 출신 작가들의 전시관도 추가로 조성해 국내에서는 최초로 문학마을 일대에 총 8인의 작가 전시관이 탄생한다.

이는 한국문학사의 큰 획을 그은

작가를 다수 배출한 목포이기에 가능한 전국 최초의 유일한 사례로, 문학의 도시로서 목포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더불어, 불종대, 남교소극장, 북교동 성당까지 이어지는 주요 길목을 작가 이름을 딴 문학골목으로 조성한다. 마을 곳곳에는 문학을 테마로 한 포토존과 야와 갤러리가 마련되며, 문학디자인 거리, 문학공원, 문학마을센터와 홍보관도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문학마을 플랫폼 구축을 통해 방문객을 위한 관광안내소 및 온라인 홈페이지를 개설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문학마을을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목포의 풍부한 문학적 자산을 활용해 전국 최초의 문학마을을 조성하고, 이를 차별화된 관광자원으로 발전시켜 문학의 도시 목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목포(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울진군은 동해중부선 철도개통에 발맞춰 관광 활성화와 관광객의 편의를 지원하고자 지난 10일부터 '관광택시' 서비스를 시작했다.

울진군 '관광택시'로 관광객 편의 지원

울진군은 동해중부선 철도개통에 발맞춰 관광 활성화와 관광객의 편의를 지원하고자 지난 10일부터 '관광택시' 서비스를 시작했다.

관광택시는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숙련된 택시 기사가 주요 관광지를 안내하며 이동을 지원하는 관광객 맞춤형 서비스로 가족, 친구, 연인 등 다양한 관광객들이 각자의 취향에 맞는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울진(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부산시설공단 광안대교로 녹내장 질환 알린다

세계 녹내장 주간을 맞아 부산의 대표 상징물인 광안대교가 그린 색상으로 변신한다.

부산시설공단은 세계 녹내장 주간(World Glaucoma Week)을 맞아 3월 12일 오후 8시 40분부터 20분간 광안대교 경관 조명 전체를 녹색 점등으로 표출한다고 밝혔다.

한국녹내장학회는 2025년 세계 녹내장 주간을 기념해 국민들에게 녹내장 질환의 위험성에 대한 조기 진단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대국민 홍보·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이도식 기자

울산시 '반구천의 암각화' 탐방로 조성

울산시는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발맞춰 문화유산과 경관 명소를 연결하는 역사·문화 탐방로 조성사업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와 두동면 천전리 등 반구천 일원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지난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총 175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주요 사업 내용은 탐방로 정비와 주차장 설치, 습지 경관 개선, 휴게공간 조성, 옛길 복원 및 정비 등이다.

/울산=이도식 기자

해남군 내일 '해남정원도시 포럼' 열려

해남군이 정원도시 비전을 역점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3일 해남정원도시 포럼을 개최한다.

군은 기후위기와 팬데믹의 영향으로 기후 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정원도시 조성을 통한 살기 좋고 아름다운 '농어촌수도, 해남' 전략의 밑그림을 완성해 나가고 있다.

이번 포럼은 '정원도시, 해남·땅·끝에서 피어나다'를 주제로 산림청 및 전라남도, 정원 전문가 등의 강의 및 토론을 통하여 정원도시 해남의 정책 방향성과 정원문화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대구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선정

대구지역 혁신 프로젝트 등 3개 사업에 총 43억 투입

대구시가 고용노동부의 '2025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34억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3개 사업은 '대구지역 혁신 프로젝트', '대구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대구 자동차부품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등이다.

시비와 국비 34억원 등 모두 43억원이 투입된다.

'대구지역 혁신 프로젝트'는 모터소부장 분야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18억원 규모로 취업역량 강화교육 및 취업연계 프로그램 제공 등 청년구직자들의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대구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은 반도체 및 자동차 부품 산업 분야 청년

인력유입 및 고용유지 제고를 위해 17억원 규모로 신규 취업자와 채용기업 대상 고용장려금 및 근로환경개선을 지원한다.

또 '대구 자동차부품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은 지난해 4월에 체결된 고용노동부와 현대·기아차 자동차산업 상생협약에 따라 지역 자동차부품업 2·3차 협력사 임금격차 완화 및 구인난 해소 등을 위한 8억원 규모의 고용장려금을 신규 취업자와 채용기업에 지원한다.

일자리사업은 3월부터 12월까지 수행기관인 대구상공회의소를 통해 공모로 진행되며, 올해는 700여 명의 고용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는 국비 30억원을 확보해 5대 신산업 분야 인력양성 등 총 38억 원을 지원해 561명 고용창출 성과를 거뒀고, 132개 기업을 지원했다.

/대구=김강석 기자 presskim@

전남도, 올해 어선어업 분야에 466억 투입

어업 기반시설 등 17개 사업 추진

전라남도는 올해 어선어업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466억원을 들여 어업 기반시설, 어선원·어선재해보험, 친환경 어업 환경개선 등 17개 주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야별로 어업기반시설 조성에는 203억원을 투입해 인양기와 부잔교, 어업인 편의시설을 조성한다. 인양기는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소형어선을 육상으로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장비로, 어업인의 재산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부잔교는 어선이 접안할 때 어업인의 승하선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어업 재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84억원을 지원한다. 어선원 재해보험은 조업 중 재해를 입은 어선원

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올해부터 3톤 이상 어선에서 모든 어선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어선 재해보험은 어선이 해상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신속히 복구하도록 지원하며, 어업인 안전보험을 통해 어선·어선원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친환경 어업을 위한 어업환경 개선 사업은 179억원이다. 어업경비 절감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를 보급하며, 어구 보증금제 실시로 사용이 끝난 폐어구의 회수율을 높이고, 해파리, 불가사리 등 유해생물을 구제해 지속가능한 어장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연근해어선 감척을 추진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부산시, 고환율 피해기업에 100억 지원

업체당 최고 1억 한도

부산시는 부산신용보증재단과 함께 대외 경제 상황 악화에 따른 환율 상승으로 피해를 본 수입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고환율 피해 기업 지원' 특별자금 1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한국무역협회 등에서 발급하는 '수입 실적 증명서'상 최근 6개월 이내 무역 거래 확인 증명이 가능한 수입 직접 피해 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고 1억원 한도로 5년간 이자 차액 2%를 지원한다.

당기 매출액의 2분의 1 또는 최근 6개월 매출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최대

보증 한도를 산출하고, 대표자의 개인 신용 평점과 상관없이 지원하는 등 저신용으로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운 기업에 가뭄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연체, 세금 체납, 폐업, 소유 부동산 관리 침체, 신용 회복, 개인 회생, 파산 및 신용 관리 정보 등록된 기업 등에 대해서는 대출이 제한된다.

신청 기간은 3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또는 자금이 소진되거나 환율이 안정될 때까지며 부산신용보증재단 또는 부산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경북도,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안동시·예천군 선정

올해 경북 안동시와 예천군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가 각각 건립된다.

경북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의 '2025년도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에 안동시와 예천군이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안동시에는 풍산읍 경북바이오산업단지 일원, 예천군에는 호명읍 도청신도시 2단계 부지에 건립된다.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 사업체 등과 지원 시설이 함께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 비수도권의 영세한 창업·중소벤처 기업 등에 저렴한 임대공간



안동_지식산업센터.

을 제공한다.

신규 건립 지역으로 선정된 안동시와 예천군은 올해 각각 설계비 10억원, 5억원씩을 우선 지원받게 되며, 5년간 국비 271억원(안동시 160억원, 예천군 111억원)을 단계적으로 교부받는다.

/안동(경북)=김준한 기자 kih9@

“美·유럽 필두 ‘건강 먹거리’ 글로벌 전파… 흑자전환 기대”

풀무원, 매출 ‘3조 클럽’ 입성

‘건강한 먹거리’ 풀무원이 해외에서 빛을 받았다. 지난해 ‘3조 클럽’에 입성한 풀무원은 올해도 두부와 누들, K-푸드를 앞세워 수익성을 개선하고, 미국과 유럽 시장 진출을 통해 글로벌 사업을 본격 확장한다.

풀무원은 지난해 전년 대비 7% 증가한 3조2137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최대 실적을 썼다. 영업이익은 921억원으로 전년 대비 48% 증가했다. 해외에서 적자폭을 줄인 게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됐다는 평이다. 특히 해외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에서 적자폭을 줄이면서 올해 처음으로 해외에서 연간 흑자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다.

풀무원은 34년 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법인을 설립하며 미국에 진출했다. 2016년 인수한 비타소이 두부 사업 부문은 10년째 미국 두부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연간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미국 법인 매출액은 4000억원을 넘었다. 풀무원 전체 해외 매출 가운데 70%에 달한다. 증가하는 두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풀무원은 미국 동부 매사추세츠주의 아이어 두부 공장의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



▲풀무원 길로이 생면공장 전경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풀무원USA 풀러튼 공장서 포장 두부가 생산되고 있다. /풀무원

**두부·누들 등 ‘K-푸드’ 수익 개선
매출 전년비 7%, 영업이익 48% ↑
美 진출 10년… 두부 점유율 1위**

**최근 네덜란드에 영업사무소 개설
美 법인 통해 영국에 누들 등 수출
일본·중국 두부 등 수출·공급 강화**

터는 월 1400만 모를 생산할 수 있다. 풀무원은 미국 시장에서 습득한 노하우를 토대로 유럽 소비자 입맛을 사로잡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풀무원 미국 법인은 최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영업 사무소를 개설했다. 올 하반기 지역에 판매 법인을 세우기 전 현지 분위기를 파악하고 현지 채널과 납품 방식에

대해 미리 논의하기 위함이다. 네덜란드를 유럽 사업의 거점으로 낙점한 이유는 유럽 최대 규모의 무역항인 로테르담 항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풀무원은 2023년 유럽 시장에 처음 진출했다. 미국법인을 통해 대형마트인 코스트코와 협력해 영국 일부 매장에 아시아 누들 등을 수출했다. 그 사이 유럽 내에서 K-푸드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졌고, 웰빙 제품에 대한 선호도 증가했다. 유럽에서는 두부텐더, 두유면, 순두부 토피아 등 식물성 제품들과 한국 길거리 음식인 이른바 ‘K-스트리트 푸드’를 앞세워 유럽 소비자 입맛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풀무원은 미국 B2C 두부 판매 시장 점유율 67%(지난해 말 기준)를 기록하고 있다.



-푸드 확산을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한식 참치김밥’을 수출하기 시작했다.

일본 시장에서는 단백질 간편식 ‘두부바’가 현지 편의점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지난해 7월 기준 누적 판매량 7000만 개를 돌파했다. 세븐일레븐, 훼미리마트, 로손 등 약 3만여 개 점포에서 일 평균 약 7만 개가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풀무원은 ‘두부바’의 지속적인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약 187억원을 투자해 일본 사이타마현 북부에 있는 고다 생산공장의 두부바 생산설비를 확충했다. 이를 통해 일본 내 식물성 단백질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지난해 10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 최대 식품 박람회 ‘시알 파리 2024’에 참가해 부스를 차리고 이들 제품을 유럽 바이어·소비자들에게 선보인 바 있다. 또 풀무원은 현지화 전략도 병행해 일부 제품군에 한해 유럽 단독 제품을 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과 중국에서도 현지 소비자들의 취향과 수요를 반영한 제품 개발과 생산 능력 강화를 통해 입지를 지속적으로 확대중이다.

중국에서는 2022년 베이징에 연면적 1만2146㎡ 규모의 베이징 2공장을 준공해 연간 두부 생산량을 기존 1500만 모에서 6000만 모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중국 내 두부 및 두부 가공제품의 공급을 강화했으며, 지난해 9월에는 중국 내 K

국내에서는 ‘지속가능식품 확장’, ‘글로벌시장 확대’, ‘ESG경영 강화’, ‘푸드테크(Food-tech) 통한 미래 대응’ 등 4대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모멘텀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채널 성장세와 B2B 채널의 수익성 개선을 토대로 국내식품제조유통사업의 지속 성장에 힘을 신는다.

풀무원 관계자는 “올해 해외 사업에서 흑자전환을 기대하고 있다”며 “미국에 이어 유럽 시장 진출을 통해 해외 사업을 본격 확장할 계획이며, 각 진출 국가별로 현지화 제품을 개발하고 선보이며 입맛을 사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편의점, 건강식품 도입… 헬스케어 시장 공략

CU, 건기식 강화점포 5000개로 확대 GS25, 베트남에 ‘편의점-약국’ 매장

편의점 업계가 헬스케어 시장으로의 확장 조짐을 보이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지속적인 수요가 일자 사업군을 확장해 소비자 공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BGF리테일에 따르면, 편의점 CU는 건강식품 특화점을 확대, 본격적인 건강식품 도입을 추진하며 헬스케어 시장 공략에 나선다.

본격적인 건강식품 시장 공략을 위해 CU는 기존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진열 강화 점포를 3000개에서 5000개로 확대한다. 또, 상반기 중 직영점을 중심으로 건기식 테스트를 진행하고, 주요 제약사들과 차별화 제품 출시를 논의해 내년 상반기까지 건기식 판매 가맹점을 전국적으로 넓힌다는 방침이다.

편의점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 역시 약국과 협력을 통해 헬스케어 시장 고객을 공략한다.

GS리테일은 베트남 시장에서 동화약품의 베트남 약국 체인 중선파마와 손잡고 베트남 최초 ‘편의점-약국’ 스텝인숍 매장을 선보인다.

GS25는 협약의 첫 단계로 베트남 끼엔장성 고공시에 ‘GS25 버저링-고공점’을 새롭게 선보인다. 총 89평 규모로 조성된 해당 점포는 1층에서 GS25와 중선파마가 함께 운영되며, 2층에는 고객을 위한 시식 공간이 마련됐다. 간편식, 냉장·냉동 식품, 음료, 주류 등 상품들이 진열된 공간 한편에는 4명의 약사가 상주해 의약품 1500여 종과 건강식품 600여 종을 판매한다.

GS리테일은 올해 주요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10개 이상의 스텝인숍 매장을 추가 오픈할 계획이다

편의점 업계가 헬스케어 시장으로사

업을 확장하는 것은 인구 고령화와 건강 소비 트렌드 확산으로 인해 헬스케어 시장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CU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건강 관리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편의점에서도 건강 관련 제품을 찾는 고객들이 부쩍 늘었다”며 “CU 건강식품 제품군 전년 대비 매출 신장률을 살펴보면, 지난 2021년 5.3%, 2022년 27.1%, 2023년 18.6%로 꾸준히 성장 중”이라고 말했다.

e커머스 업계도 건강 소비 트렌드 확산에 맞춰 헬스케어 제품군을 강화하고 있다. G마켓은 최근 중근단 건강과 손잡고 건기식 제품군 확대에 나섰다. 중근단건강의 전용 브랜드숍을 제작해 건기식 신제품 판매 촉진에 나서는 한편, 자사 빠른 배송 서비스인 ‘스타배송’ 서비스를 통해 고객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롯데마트, 120여개 상품 ‘스노우특가’ 할인

내일부터 2주간 전용 앱 회원 대상

롯데마트가 이달 13일부터 26일까지 전국 모든 매장에서 2주간 자사 전용 애플리케이션 회원 고객을 대상으로 ‘스노우플랜 봄 페스타’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롯데마트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서는 120여개 상품을 대상으로 ‘스노우특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스노우특가는 오프라인 전용 애플리케이션 ‘롯데마트GO’ 회원에게 제공되는 특별 할인 행사다.

먼저, 롯데마트는 이달 14일부터 15

일까지 ‘수입산 돼지 삼겹살(100g)’을 오프포인트 회원 및 행사카드 결제 고객에게 약 60% 할인한 690원에 선보인다. 이번 삼겹살 할인 행사는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진행되며 1인당 1kg까지 구매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호주산 청정와규 전 품목’, ‘제주 한라봉’, ‘카스 프레스’ 등이 대표 할인 상품에 포함됐다.

/안재선 기자

현대홈쇼핑, 5060 맞춤형 애슬레저 PB 첫 선

‘아카이브 1.61’ 오늘 아쇼라서 공개

현대홈쇼핑이 업계 최초로 애슬레저 전문 자체 브랜드(PB) ‘아카이브 1.61’을 선보인다고 11일 밝혔다.

아카이브 1.61은 기록 보관소를 의미하는 아카이브(ARCHIVE)와 황금비율인 ‘1:1.61’을 결합한 명칭으로, 일상에서 가장 이상적이고 균형 잡힌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한다는 브랜드 철학을 담고 있다.

현대홈쇼핑에 따르면, 이번 신규 브랜드를 통해 50~60대 소비자층을 겨냥한 맞춤형 제품군을 선보일 예정이다. 첫 제품은 이달 12일 패션 프로그램 ‘서아라의 쇼핑라이브(아쇼라)’에서 공개된다.

아울러, 현대홈쇼핑은 지난해 가을·겨울 시즌 선보인 아웃도어 자체 브랜드 ‘어반어라운드’ 제품군도 함께 공개할 계획이다. 봉제선을 없앤 ‘심리스 컬렉션’, 야외 활동에 특화된 ‘웰니스 컬렉션’, 장마철과 폭염을 대비한 ‘웨더 컬렉션’ 등 다양한 제품군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고급적인 현대 스타일을 반영한 자체 브랜드 ‘머티리얼랩’ 상품군도 선보인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현대홈쇼핑 관계자는 “고객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과 개성을 반영해 애슬레저, 아웃도어 등 다양한 특화 브랜드 론칭에 나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PB 라인업을 강화해 지속적으로 시장 경쟁력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재선 기자

G마켓·옥션, 카이스트 샴푸 ‘그래비티’ 선포

탈모 완화, 모발 볼륨개선 효과

신세계그룹 계열 e커머스 기업 G마켓과 옥션이 카이스트 연구진이 개발한 고성능 탈모 샴푸 브랜드 ‘그래비티’를 선보인다고 11일 밝혔다.

그래비티는 카이스트 연구진이 개발한 고성능 헤어 케어 브랜드로, 탈모 완화와 모발 볼륨 개선을 위한 제품을 제공한다. 소량 생산 방식으로 공급이 제한적인 것이 특징이다.

이번 G마켓에서 선보이는 제품은

▲그래비티 헤어리프팅 엑스트라 스트롱 475ml 탈모 샴푸 ▲그래비티 헤어리프팅 스트롱 475ml 탈모 샴푸 ▲그래비티 헤어리프팅 워터트리트먼트 270ml 극손상 헤어팩 등 총 3종이다.

제품은 G마켓의 ‘스타배송’을 통해 주말 포함 일주일 내내 익일 배송으로 받을 수 있다. 스타배송은 100% 도착 보장을 목표로, 고객과 약속한 날짜에 맞춰 상품을 배송하는 서비스다.

/안재선 기자

HLB그룹, 애니젠 인수로 몸집 키우기... 신약 파이프라인 확대

600억 확보... 자금난 해소 방침
애니젠, 펩타이드 소재 확보 기업
경쟁력 기반으로 HBS 확장 박차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전문회사 HLB그룹이 외형 확장과 함께 신약 개발 부분에서 다방면으로 기업 입지를 넓히고 있다.

11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바이오기업 HLB그룹은 지난 10일 신약개발 기업 애니젠을 인수했다. HLB그룹의 7개 계열사가 150억원 규모의 3차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50억원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한다. 이와 별도로 재무적투자자(FI)도 50억원의 유증과 3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한다.

이에 따라 애니젠은 600억원의 자금을 확보하고 자금난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애니젠은 펩타이드바이오 소재를 확보하는 등 혁신 신약 개발에 집중해 왔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애니젠 전체 매출은 의약품 펩타이드 소재 55%, 연구



HLB R&D센터 전경.

/HLB그룹

용 펩타이드 소재 44% 등으로 구성됐다. 또 애니젠은 플랫폼 기술 'APsoluT(AGM-330)'을 보유하고 있어 유방암, 위암, 대장암 등 항암제 파이프라인을 구축했다.

대표적으로 AGM-130의 경우, 특정 표적치료제가 없는 삼중음성 유방암 치료제 후보물질로, 전남대 병원에서 임상 1a상을 완료하는 등 임상 단계에 진입해 있어 주목을 받는다.

애니젠은 국내 최초 펩타이드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인증 공장과 대용량 펩타이드 공급 능력까지 갖췄다.

지난해 10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불임용 치료제 가니렐릭스 원료의약품에 대한 품목허가를 신청하기도 했다. 해당 품목허가를 승인받는 경우, 애니젠은 주력제품인 '류프로렐린'과 '가니렐릭스' 원료의약품을 비롯해 다양한 펩타이드 원료의약품 중심으로 한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을 활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애니젠의 기업 경쟁력을 기반

으로 HLB그룹도 'HBS(HLB 바이오 에코시스템)'을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HLB그룹은 바이오 산업 관련 계열사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협업 시스템을 성장동력으로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에 애니젠을 인수하는 핵심 계열사인 HLB그룹의 HLB제넥스도 지난해 11월 HLB그룹이 인수한 바이오 회사다.

HLB제넥스의 전신은 맞춤형 효소 및 바이오헬스케어기업 '제노포커스'다. 당시 HLB, HLB파나진, HLB생명과학, HLB테라퓨틱스 등 HLB그룹 계열사는 '제노포커스' 제3차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제노포커스 지분 26.48%를 인수하고 경영권을 확보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말 HLB이노베이션은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키메라 항원수용체 T세포(CAR-T) 치료제 개발사인 베리스모테라퓨틱스와 합병을 마무리했다. 특히 베리스모테라퓨틱스 창업자이자 대표이사인 브라이언 김을 HLB이노베이션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해 향후 차세대 신약 개발에 적극 대응한다.

베리스모테라퓨틱스는 지난 2020년 세계 최초 CAR-T 치료제 '킴리아'를 개발한 연구팀이 설립한 회사다. 현재는 미국에서 난소암, 중피종 등 고형암과 재발성·불응성 비호지킨 림프종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HLB그룹은 미국 항암제 신약도 정조준하고 있다. HLB는 앞서 지난 2024년 9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간암 1차 치료제로 개발한 '리보세라납'과 중국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맵' 병용요법에 대한 품목허가 재심사를 신청해 최종 결과를 앞두고 있다. FDA는 품목허가 여부를 오는 20일(현지시간) 내 공개될 예정이다.

국내 제약 업계 관계자는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한 성과가 향후 기업 가치에 반영될 것은 물론이며 차별화된 기술력이나 파이프라인을 자사 경쟁력으로 내재화하겠다는 전략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며 "오픈이노베이션이나 기술수출 등과 같이 쉽게 말해 K제약·바이오 원팀으로 내다보고 있는 움직임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

'직작뷰티' 라이브방송에 뷰티거래액 쾅쾅

중소 브랜드 성장 동로역할 '톡톡' 에크멀, 직전주비 거래액 64배 늘어
키스미 674% ↑, 에스쁘아 125% ↑

카카오스타일이 운영하는 스타일 커머스 플랫폼 '지그재그'의 뷰티 전문관 '직작뷰티'에서 진행되는 라이브 방송이 입점 브랜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직작뷰티는 지그재그 내 뷰티 전문관으로 실시간으로 고객과 소통하며 상품을 소개하는 라이브 방송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브랜드와 고객 간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방송 횟수를 점차 늘려 나가고 있다.

카카오스타일은 직작뷰티의 라이브 방송이 중소 브랜드 성장의 동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화장품 브랜드 '에크멀'은 라이브 방송 진행 당



직작뷰티 라이브 방송 관련 포스터.

/카카오스타일

일 거래액이 직전 주 대비 64배 이상 증가했으며 식단 관리 및 건강 간식 브랜드 '베노프' 역시 라이브 방송 당일 거래액이 26배 이상 늘었다.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뷰티 브랜드도 성장세를 보였다. 마스크라·아이라이

너 등 메이크업 브랜드 '키스미'는 라이브 방송 당일 거래액이 직전 주 대비 674% 증가했으며, 아모레퍼시픽의 메이크업 전문 브랜드 '에스쁘아' 거래액도 125% 늘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아웃백 잠실롯데점' 신규 오픈... 폭넓은 고객층 방문 기대

오는 20일까지 오픈 기념 굿즈 증정

캐주얼 다이닝 레스토랑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이하 아웃백)가 서울 송파구 롯데백화점 잠실점 내 '잠실롯데점'을 11일 신규 오픈했다.

잠실롯데점은 교통과 쇼핑, 주거 집결지인 잠실 중심에 위치해 잠실역, 월드컵, 롯데월드, 롯데월드타워 등과 연결돼 있다. 특히 실내를 통한 접근이 용이해 백화점과 쇼핑몰 방문객, 가족 단위 고객, 놀이동산 방문객 등 폭넓은 고객층이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장 외관은 아웃백의 정통성을 반영한 그린 캐노피 디자인 지붕과 호주와



아웃백 잠실롯데점 내부 전경.

이너리를 연상시키는 아치형 구조를 적용했다. 또한, 매장 입구 천장에는 호주 여행을 상징하는 나침반 디자인을 배치해 고객들이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호주로 여행 온 듯한 이국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잠실롯데점은 총 429.7㎡(약 130평)

규모에 34개 테이블, 148석의 좌석 수를 갖췄다. 창가석은 2인석, 4인석, 6인석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롯데월드 외부 전경을 감상할 수 있으며, 행사나 모임 등으로 독립된 식사를 원하는 고객들을 위해 프라이빗 룸(14인석)과 오픈 키친도 마련되어 고객 경험을 극대화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되며(주문 마감시간은 오후 8시 30분), 딜리버리 서비스도 제공된다. 오픈을 기념해 오는 20일까지 매일 선착순 50명에게 지난해 한정판 굿즈로 인기 끌었던 '아웃백 1997카드'를 증정하는 특별 이벤트도 진행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동서식품, '포스트 크리치오 쿠키' 선배

출시 맞아 디지털 필름 공개

동서식품이 신제품 시리얼 '포스트 크리치오 쿠키' (사진)를 출시했다.

신제품 '포스트 크리치오 쿠키'는 크리치오 시리얼에 고소한 쿠키를 담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선보이는 제품이다. 특히 '치오' 캐릭터와 '치오'의 세프모자, 우유팩 등 다양하고 귀여운 모양의 쿠키가 보는 재미를 함께 선사한다.

포스트 크리치오는 지난해 5월 새롭게 선보인 시리얼이다. 세 겹 구조로 만들어져 우유와 곁들여도 오랫동안 바삭함이 유지되며, 풍부한 초콜릿 맛을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5가지 곡물과 8가지 비타민을 함유하여 우유 없이 간편한 영양 스낵으로도 즐길 수 있다. 또한 '치오(Cheehoh)'라는 귀여운 고슴도치 세프 캐릭터가 재미를



더하며 인기를 모았다.

동서식품은 이번 포스트 크리치오 쿠키 출시를 맞아 디지털

필름을 공개하고 향후 제품 샘플링, 체험단 운영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프로모션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동서식품 김가영 마케팅 매니저는 "신제품 '포스트 크리치오 쿠키'는 세 겹의 바삭한 초코 시리얼에 여러가지 모양의 귀여운 쿠키를 함께 담아 먹는 즐거움에 보는 재미까지 느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점차 다양해지는 소비자들의 취향을 반영하여 맛과 영양에 재미까지 더한 다양한 시리얼 제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삼립, 저당 베이커리로 웰니스 시장 공략

'프로젝트:H' 라인업 확대

삼립이 건강빵 브랜드 'Project:H(프로젝트:H)' 라인업을 확대하고 웰니스 시장 공략에 나선다.

'Project:H(프로젝트:H)'는 맛과 건강의 밸런스를 맞춰 론칭한 저당 베이커리 브랜드로 지난해 5월 7종을 출시한 데 이어 식사빵과 디저트 4종을 새롭게 선보였다. 식사대용이 가능한 식빵과 모닝빵은 단백질과 식이섬유 함량을 높였고 디저트 2종은 당류 제제로 출시했다.

'고단백 저당 식빵'은 15시간 숙성 발효 후 두 번 반죽해 쫄깃한 식감을 구현했고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각 13.6g, 8.6g(100g 기준) 함유돼 맛과 영양의 균

형을 맞췄다. '고단백 저당 모닝빵'은 날개 포장 방식을 적용해 편의성을 높였다. 두 제품의 당류는 각 3g(식빵), 4g(모닝빵) 포함됐으며, 저당(100g 당 5g 이하) 제품이다.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당류 0g 디저트도 출시했다. 풍미 깊은 크림치즈와 씹새로운 커피 맛이 조화로운 '제로 티라미수'와 말차·초코·오렌지&코코넛·얼그레이네 가지 맛으로 구성된 '제로 마들렌'이다.

건강을 챙기면서 디저트도 놓치지 않으려는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이다. 제품은 삼립공식몰 등 온라인 판매처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4월 초 쿠팡 채널에 추가 입점한다.

/신원선 기자

www.sjame.co.kr

농업의 성장동력! 농업의 미래!

2025 상주농업기계박람회

2025. 3. 25.(화) ~ 3. 28.(금)

태평성대경상감영공원 일원(경북 상주시)

전시분야

자율작업, 농업로봇, AI, 스마트팜 등 스마트농기계 전시
일반 농기계·자재 전시(수도작, 밭농업, 축산, 수확 및 가공, 시설농업 등)

부대행사

학술심포지엄, 시설원예수출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밭농업기계 담당자
현장 교육, 승마로봇체험, 경품응모 등

문의처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수출전시팀 : 041-411-2135~7
상주시 농업정책과: 054-537-7441~2

후원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북도, 농촌진흥청
농협경제지주,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농업기계학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 상기 내용은 추진 상황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최:  상주시 주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BNK부산은행-부산시, 저출산 극복 힘 모은다
 BNK부산은행은 부산시청에서 부산시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부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방성빈 BNK부산은행장(왼쪽)과 박형준 부산광역시 시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BNK부산은행



포스코, '2025년 동반성장지원단' 출범식 개최
 포스코는 벤처 기업 인큐베이팅 센터인 체인지업그라운드 포항에서 '2025년 동반성장지원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지난해 지원단 활동 성과와 올해 컨설팅 계획 등을 공유했다. 이유경 포스코 구매투자본부장(가운데)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포스코



기술보증기금, 평화의집에 기부금 300만원 전달
 기술보증기금이 부산 북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평화의집에 기부금 300만원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기부금은 복지시설 이용자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하는 데 사용한다. 기보 천창호 이사(왼쪽에서 세번째)가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보



이노비즈협회, 김완기 특허청장 초청 간담회
 이노비즈협회는 11일 오후 경기 판교 협회 회의실에서 김완기 특허청장 초청 이노비즈기업인 지식재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 역시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이노비즈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규제 개선 및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를 통한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노비즈협회



대상그룹, '글로벌 워케이션' 프로그램 도입
 대상그룹이 한국-일본 연계형 '글로벌 워케이션(Work+Vacation)'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에 근무하는 대상그룹 직원들이 일정 기간 동안 일본에서 현지 업무 환경을 경험하는 등의 형태로 진행된다. 또, 휴가시의 자연과 문화를 체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참여해 일과 휴식이 조화를 이루는 조직문화를 조성한다. /대상그룹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체코 외교훈장 수훈

현대차그룹, 현지 생산공장 운영 정 회장, 韓-체코 외교 기여 공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체코 정부로부터 외교 훈장을 받았다. 11일 이반 안차렉 주한 체코대사의 엑스(X·옛 트위터)에 따르면 그는 지난 10일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에서 안 리파브스키 체코 외교부 장관을 대신해 정 회장에게 외교 훈장을 수여했다. 안차렉 대사는 "리파브스키 장관 대신 훈장을 수여할 수 있게 돼 영광"이라며 "수상을 축하하고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한국과 체코의 외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훈장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는 정 회장과 함께 성김 현대차 사장과 김일범 부사장이 참석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체코 정부로부터 외교 훈장을 받았다. (왼쪽부터) 이반 안차렉 주한 체코대사,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뉴시스

현대차그룹은 지난 2009년부터 체코 오스트라바시 인근 노소비체에 현대차 체코공장(HMMC)을 운영 중이다. 이 공장의 연간 생산 규모는 33만대 수준으로 코나 일렉트릭, i30, 투싼 등을 만들고 있으며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한 상징적 해외 생산 거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 회장은 지난해 9월 스마트 제조 플랫폼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는 체코 공장을 방문해 생산라인을 직접 둘러보고 임직원을 격려했다고 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어성철 사장, 韓-태국 '지속가능한 협력' 이끈다

(한화오션)

어 사장, 타니 주한 태국대사 회동 조선소 협업 확대 등 장기비전 제시

한화오션이 호위함 수출로 인연을 맺은 태국 정부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속 가능한 협력'을 논의했다. 한화오션은 지난 10일 서울사무소에서 특수선사업부장 어성철 사장과 회사 관계자들이 타니 썬랏(Tanee Sangrat) 주한 태국 대사(왼쪽)와 한화오션 특수선사업부장 어성철 사장이 협력 회의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현지 조선소와의 협업을 확대하겠다는 장기 비전을 제시했다. /양성운 기자



10일 한화오션 서울사무소에서 타니 썬랏(Tanee Sangrat) 주한 태국 대사(왼쪽)와 한화오션 특수선사업부장 어성철 사장이 협력 회의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어 사장은 "이번 방문은 태국의 해양 안보를 지탱하는 믿음직한 동반자로서 한화오션의 의지와 비전을 공유하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함정수출과 협업을 통해 태국 산업의 역량을 키우고 경제 성장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유한양행, 유일한 박사 54주기 추모식

조옥제 사장 등 300여명 참석

유한양행 창업자인故 유일한 박사의 영면이 54주기를 맞았다. 유박사는 지난 1971년 3월11일 76세를 일기로 영면했다.

유한양행과 유한재단, 유한학원은 3월 11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 유한대학에 위치한 유재관 대강당에서 유일한 박사 제54주기 추모식을 가졌다.

이날 추모식은 유족 및 조옥제 사장을 비롯한 유한양행 임직원, 유한재단과 유한학원 관계자, 유한가족 사임직원, 유한공고 및 대학 재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거행됐다. 추모식에 앞서 유한양행 임직원



유한양행과 유한재단, 유한학원이 11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 유한대학에 위치한 유재관 대강당에서 유일한 박사 제54주기 추모식을 가졌다.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거행됐다. 추모식에 앞서 유한양행 임직원

들은 유일한 박사의 묘소인 유한동산에서 묵념과 헌화를 하며 고인을 뜻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유한양행 조옥제 사장은 추모사를 통해 "우리가 오늘 이곳에 모인 것은 박사님께서 남기신 숭고한 정신과 위대한 업적을 더욱 받들어 우리가 나아갈 바를 생각하고, 또한 그 실천을 다짐하기 위함"이라며 "유한양행은 인류의 건강과 행복에 이바지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정진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불우한 이웃 돕기와 장학사업 및 인재양성에 노력을 아끼지 않는 유한재단과 유한학원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기정원,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우수'

93.3점 획득... 최고등급 획득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6년

연속으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11일 기정원에 따르면 이번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93.3점을 획득하여 전국 240개 기타 공공기관 그룹(그룹평균 53.3점) 내

평가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기정원 사업기반본부 정선욱 본부장은 "고수요·고품질 데이터 제공 뿐만 아니라 국민이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 체계 고도화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쿠광플레이, 'F1' 생중계

쿠광플레이는 올해 75주년을 맞이한 '2025 FIA 포뮬러 원 월드 챔피언십(F1)'의 전 그랑프리를 생중계한다고 11일 밝혔다.

쿠광플레이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15분 호주 그랑프리 연습 세션 '프랙티스1'을 시작으로 15일 오후 1시 20분에는 '퀵리파이'를, 16일 오후 12시 30분에는 '레이스'를 차례로 중계한다. 퀵리파이 시작 1시간 전에는 새 시즌의 관전 포인트를 짚어보는 '시즌 프리뷰쇼'를 선보이며 F1 2025 시즌의 출발 신호를 울린다.

쿠광플레이는 현장 생중계와 리포팅을 확대할 예정이다. 2025년 F1 시즌은 전 세계 22개국 24개 도시를 돌며 개최되는데, 이 중 총 5곳을 찾아가 중계의 현장감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올 시즌 첫 현장 방문은 4월 일본에서 열리는 그랑프리, 진세민 아나운서의 현장 리포팅으로 진행된다. /김현정 기자 hjk1@

롯데GRS iF 어워드 디자인 2관왕

롯데GRS의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 '엔제리너스'와 카카오 디지털 브랜드 '쇼콜라팔레트'가 국제 디자인 어워드인 '2025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각각 패키지 부문 본상을 수상했다.

iF 디자인 어워드는 미국의 IDE A(International Design Excellence Award), 독일의 레드닷(Red Dot) 어워드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로 꼽히는 시상식이다.

이번에 수상한 것은 '엔제리너스 베이커리 패키지'와 '쇼콜라팔레트 브랜드 디자인'으로 각 브랜드만의 고유한 디자인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엔제리너스는 베이커리 카페 라인업을 확장하며 고객들에게 더욱 친근하고 매력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디자인을 개발했다. 특히 일러스트 작가와 협업한 독창적인 핸드드 로잉 스타일의 그래픽과 따뜻한 컬러 팔레트를 통해 브랜드의 감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한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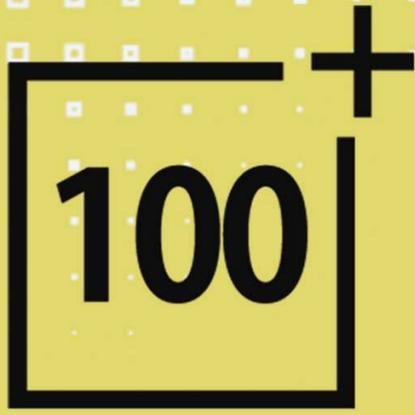
쇼콜라팔레트는 초콜릿을 통해 특별한 순간을 선사하는 브랜드 철학을 반영한 디자인을 개발했다. 특히 고전 양장본 책에서 영감을 받은 패키지 디자인과 카카오 열매 및 동물 캐릭터를 활용한 독창적인 그래픽이 특징이다. 책을 여는 구조로 설계되어 디저트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기대감과 설렘을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며 다양한 컬러 팔레트의 디자인은 초콜릿의 맛과 개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인사

◆국토교통부 ◇과장급 발령 △부동산 평가과장 정재원

◆월요신문 ◇편집국 △금융 선임기자 고서령 ◇경영지원실 △실장 최해진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



난세(亂世)의 소확재(小確財)

힘든 세상, 작지만 확실한 재테크

2025년 3월 25일(화) 오후2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행사개요

- 행사명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
 - 주 제 난세(亂世)의 소확재(小確財)-힘든 세상, 작지만 확실한 재테크
 - 일 시 2025년 3월 25일(화) 14:00~17:10 (VIP 티타임 13:30~14:00)
 - 장 소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컨벤션홀)
 - 주 최 메트로신문, 메트로경제
 - 등 록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당일 카드결제 가능
 - 문 의 100세플러스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프 로 그 램
참가등록	13:00 ~ 14:00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30~14:00
개막식	14:00 ~ 14:10	〈축사〉 김병환 금융위원장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10 ~ 14:50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 글로벌 경기와 대한민국 경제 전망
강연	14:50 ~ 15:25	염승환 LS증권 이사 : 미국 주식 여전히 유효한가...증시 전망과 투자전략
	15:25 ~ 16:00	호지영 우리은행 세무컨설팅팀 : 자산가들의 절세노트 훑쳐보기
	16:00 ~ 16:35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상무 : 은퇴 준비와 작지만 확실한 재테크
	16:35~17:10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내집마련은 언제?...부동산시장 전망과 투자전략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연사 소개



김영익
-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 서강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 옥스퍼드대학교 그린템플턴 컬리지 수료



염승환
- LS증권 이사
- 경제유튜브채널 <삼프로TV>
- 저서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질문 TOP77>



김동엽
- 미래에셋투자연금센터 본부장
- KBS1라디오 <은퇴설계, 오늘부터> 출연
-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센터장



호지영
-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세무컨설팅팀
- 前 대신증권 WM추진부
- 前 KPMG 삼정회계법인 컨설팅본부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 소장, 수석부사장
- 저서 <박원갑 박사의 부동산 트렌드 수업>

AI를 활용한 맞춤형 영양 솔루션



연운열의
푸드톡톡

구글 답마인드가 개발한 인공지능(AI) 알파폴드(AlphaFold)를 활용한 메디푸드 개발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환자의 유전자 정보와 종양 특성을 분석하여 최적화된 단백질 구조를 설계하고, 면역 기능 강화와 항암 효과를 동시에 지닌 기능성 펩타이드 개발을 위한 맞춤형 치료식품 개발이 가능하다.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단백질 구조 예측 및 설계와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당뇨병 환자를 위한 혈당 조절 기능성 아미노산 식품 개발이 가능하다.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가 있는 단백질 구조 설계와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는 펩타이드를 개발함으로써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기능식품개발이 가능하다.

개인의 유전자 정보를 분석하여 최적의 영양소 조합과 유전적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능성 단백질 설계를 통해서 유전자 기반의 맞춤형 영양설계를 한다. 개인의

장내 미생물 분포를 분석하여 프리바이오틱스 효과가 있는 단백질 구조를 설계하고 유익균의 증식을 촉진하는 펩타이드를 개발하여 개인별 마이크로바이옴에 최적화된 식품 공급이 가능하다.

초고령화시대 진입에 따라 노령층 단백질 대사 변화를 고려한 최적의 단백질 구조 설계와 근감소증 예방을 위한 필수 아미노산을 조합한 개인별 맞춤형 특수의료 용도 케어식품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것이다. 알파폴드를 활용한 정밀영양학적 접근은 개인의 건강상태와 유전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영양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알파폴드를 활용한 단백질 구조예측과 이를 활용한 개인맞춤형 영양솔루션 개발을 위해서는 개인의 영양 및 건강상태와 질환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등 데이터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알파폴드의 핵심 기능인 단백질 구조 예측 능력을 활용하여 개인의 유전체, 대사체,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를 분석하여 최적화된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고 예측된 구조를 바탕으로 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영양소 조합을 설계하여 특정질환이나 건강 상태에 맞춘 기능성 단백질 설계가 가능해

질 것이다. 효소의 촉매 효율성을 최적화하고 식품가공 및 음식조리 단계에서 효소를 정밀하게 설계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생리활성 물질의 생산을 촉진하거나 최적화, 식품의 영양가, 소화율, 생체이용률을 향상, 동물성 단백질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식물성 단백질을 식별하고 환경 영향을 줄이면서도 영양가 있는 단백질 대체품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특정 식이 요구사항과 건강 목표에 맞는 단백질 설계, 개인의 유전자 정보를 분석하여 최적의 영양소 조합 예측, 유전적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능성 단백질 설계, 식품 폐기물 감소 및 자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효소 개발 등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환자의 건강데이터와 영양데이터를 분석하여 개인별 식사요법 진단, 질병 상태별 맞춤 알고리즘을 통한 맞춤형 메뉴 추천, 원료, 맛 유사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사 영양 성분 범위 내에서 대체적인 맛의 발굴 등 알파폴드는 메디푸드와 개인 맞춤형 식단 개발에 혁신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 ESG 푸드테크 소사이어티 대표

막걸리 R&D



김연세의
유통·라이프부

영국에 사는 한 친구가 전한 얘기가 있다. 런던 근교 한인마트에 막걸리가 자주 동난다는 것이다. 찾는 이 중엔 현지 교포, 유학생뿐 아니라 영국인·기타 외국인도 많다고 했다. 술을 즐기지 않는 친구는 손님 접대차 마트에 갔다. 1켤에 우리 돈 1만5000원~2만 원쯤 하는 막걸리를 겨우 2켤 손에 쥐었다. 다행히 비 내리지 않던 날이어서 소량이나마 구매가 가능했다고 했다. 국내에서 시판되는 생막걸리가 아님에도 비 오는 날이면 해외에서의 인기도 어김없이 수직 상승하는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류세 감면 및 경감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통해 우리 쌀 소비

촉진에 나선다고 했다. 연간 출고량 기준, 주세감면 요건이 종전에는 발효주 50만 리터(1·증류주 25만 l) 이하였다. 지난달 말부터 발효주 100만 l·증류주 50만 l까지로 대폭 확대됐다. 또 서울감면 요건도 완화됐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년 내에 현재 전통주에 들어가는 우리 쌀의 양을 5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또 와인이나 사케 등에 견줄 수 있는 프리미엄급 우리 술 개발에 힘을 쏟겠다고 했다.

이 같은 정책은 소규모 양조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에게는 분명 희소식이고 농업·농촌 살리기에 힘 보탬 전망이다. 물론 쌀의 과잉생산 해소책으로도 일품이다. 향후 어떤 정권하에서도 농식품부가 일관된 시책으로 추진해 봄직하다는 생각이 든다.

문제는 소비자 기호이다. 해외로 나가는 대부분의 막걸리 제품에는 효모·유산균이 아예 없다. 유익균을 모두 죽인 살균

막걸리다. 유통기한이 통상 1년 안팎이어서 수출·통관 과정에 지장이 거의 없다는 이점이 있다. 다만 유통(소비)기한이 짧게는 일주일, 길어야 한두 달인 생막걸리와는 맛이 다르다. 호불호가 갈리긴 하지만 국내에선 생막걸리의 인기가 더 높다는 게 중론이다. 몇 년 전 친구들과 한국에 놀러온 핀란드인 빌레 씨. 그가 막걸리 매력에 푹 빠진 모습이 한 TV프로그램을 통해 소개된 바 있다. 또 본국에 돌아가 직접 막걸리를 담그는 장면도 나왔다.

일부 큰 기업이 미국과 일본 등지로 생막걸리를 수출하고 있다고 한다. 유산균 수명을 늘리는 기술을 적용해 특허를 따냈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러한 연구개발(R&D)에도 예산을 쓰면 어떨까 싶다. 보존기술 개발 등을 통한 생막주의 수출길이 열리면 K-푸드 선도품목으로 단번에 올라설지도 모른다. 전국 각지 양조장이 세계 명주들과 겨룰 수 있다.

/kys@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3월 12일 (음 2월 13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휴대폰 분실을 조심. 48년생 바다에 갔으니 해임을 치거나 가라앉거나 둘 중 하나. 61년생 돌아갈 수 없는 여제가 자꾸 생각난다. 72년생 하찮은 걱정은 버리고 계획을 다시 정리. 84년생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움직여라.



37년생 자식이 예뻐도 가르칠 건 가르쳐라. 49년생 임시방편으로 시도한 일이 좋은 결과. 61년생 힘없는 친구의 의견을 무시하지 마라. 73년생 아성에게 너무 참기만 하니 마음의 병이. 85년생 마음은 청춘이나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



38년생 탐구가 끝났으면 이제 실행해 옮길 때다. 50년생 실행하지 않으면 무위도식이 되는 것이 세상 이치일 듯. 62년생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다. 74년생 자제를 낳추고 일을 추진. 86년생 뜻대로 되는 현실은 별로 없다.



39년생 사랑에는 언제나 약간의 망상이 담겨있다. 51년생 그물을 치지 않고 고기가 잡히기를 기대하지 않아야. 63년생 고정관념을 버리고 사람을 상대. 75년생 졸짜이라도 내 작품이니 괜찮다. 87년생 굳이 가는 사람은 잡지 마라.



40년생 꾸리는 둘에는 이기가 까지 없으니 꾸준히 노력. 52년생 태양이 떠 있는 한 꿈을 버리지 마라. 64년생 모심으로 갈 때는 정화를 신여라. 76년생 자신의 문제를 먼저 알아야 정답도 찾는다. 88년생 소극적 방법으로 투자해라.



41년생 초심으로 돌아가 정성을 다하라. 53년생 처신이 상대의 신뢰를 얻는다. 65년생 어제 만난 그 사람이 귀인임을 뒤늦게 안다. 77년생 시택이 멀리 있다 해서 무심하지 마라. 89년생 돼지를 사기 전에 돼지우리를 먼저 만들어라.



42년생 잃은 것이 없어서 당당한 것이 아니다. 54년생 이직서류는 듣지도 보지도 말고 앞만 보고 전진. 66년생 실수가 있으니 겸손하여지자. 78년생 변명거리를 만들면 발전이 없다. 90년생 산행에서 향기 없는 꽃에 취하지 마라.



43년생 넓은 시야로 바라볼 때 새로운 것이 보인다. 55년생 시작이 반이니 우선 착수부터 하라. 67년생 용기가 새로운 역사를 만든다. 79년생 심신이 고달프니 적당한 휴식을. 91년생 변화의 운이 들어오니 물건정리로 환경변화를.



44년생 실리는 적어도 새로 시작한 일에 분발한다. 56년생 바라는 곳에 서류를 제출. 68년생 친정과 대화하다 불화가 생긴다. 80년생 공과 시를 구별하여 사무실물품을 마구 쓰지 않도록. 92년생 과유불급이니 심한 운동을 삼가라.



45년생 뭔가를 시작하기에 적절하다. 57년생 행복은 각자에게 고유한 것인 만큼 분투의 노력이 필요하다. 69년생 불운은 날아와서 걸어서 떠난다는 격언이 있다. 81년생 그렇듯이 현재 슬퍼 마라. 93년생 집수리는 주변과 협동할 것.



46년생 힘 있는 자의 말이 옳은 것은 아니다. 58년생 조상제사 반드시 참석하자. 70년생 지나친 관심은 상대를 지치게 하고 나도 피곤. 82년생 꽃이 아름다온 건 열흘을 가지 않으니 짙은 화장은 자제. 94년생 옹골 때우자로 지출이 많다.



47년생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두우니 희망을. 59년생 기다린 보람이 있다. 71년생 좋은 차 한 잔을 마시는 여유를 지니자. 83년생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행동하면 길하다. 95년생 제비 한 마리가 날아왔다고 봄이 오는 것은 아니니 행동 자제.



김상회의四季 줄탁동시

줄탁동시,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어미 닭이 밖에서 쪼고 병아리가 안에서 쪼며 서로 도와야 일이 순조롭게 완성됨을 의미한다. 쪼탁동시라고도 하는데, 어미 닭이 병아리가 부화하는 과정을 절묘하게 표현했다. 치열하게 수행을 하는 선가의 전통에서는 열심히 수행하는 제자가 무리익은 수행이 결실을 보도록 어느 한순간 스승이 예리하게 '탁!'하고 짚어주면 어미 닭의 부리로 탁탁 쪼아 주어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오는 현상의 표현이다. 수행의 발전과 성취를 닭의 부화에 비유하니 참으로 멋진 표현이다.

불가에서는 작정 기도를 하는 경우 최소 3일 7일 21일 그다음에 백일 기도다. 백일기도부터는 중장기 기도에 속하고 그다음은 일 년 기도 천 일기도 만 일기도 이런 식이다. 여기서 필자는 삼칠일 기도라고 불리는 21일 기도에 좀 더 의미를 두고 있다. '작심삼일'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한번 결심이 사흘이 지나면 흐지부지된다는 뜻이라. 지금껏 살아오면서 수많은 작심삼일을 경험했는가? 그런데 삼일 다음은 7일이다. 칠일만 실천을 하여도 의미 있는 것인데 그 칠 일을 세 번 반복하는 것이 삼칠일 즉 21일 기도가 된다. 21일 만이라도 정성을 다하면 어미 닭이 새끼를 부화시킬 수 있는 정도의 에너지가 발휘되어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것처럼 삼칠일이 주는 의미는 기도의 힘과 가피 역시 남다름을 알려준다. 그래서 한 해가 시작되는 정초에 삼칠일 즉 스무하루 동안의 마음 모음과 정성으로 일 년이 평안할 수 있는 힘을 키운다. 전통적으로도 3일 기도는 삼신(三神)의 기운을, 7일은 복두철성이라고 하는 칠원성군의 기운을 청하는 의미가 있다. 삼신은 삼심할머니에게 도움을 청하고 칠원성군이 함께 도우니 삼칠일 기도의 의미가 남다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628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732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학습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로노스와 알파마을 증가비율
http://www.argo9.com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로노스와 알파마을 증가비율
http://www.argo9.com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3	9	6				8
		4	7	5		
5					6	
	2	8	3			4
8		1	6	5		
	9					5
		4	9	8		
4			2	9	7	

2	6	3	1	8	9	
		4			6	
7						
8	4	1				
	7				6	
				4	5	3
						1
1				2		
5	3	6	8	2	4	

4	6	1	2	9	8	8	9	7
9	8	8	6	1	7	9	2	2
9	7	2	9	2	8	6	8	1
6	2	9	2	9	1	8	7	8
1	8	8	7	6	2	9	9	2
7	9	2	8	8	9	2	1	6
8	2	9	8	7	6	1	2	9
2	1	6	9	8	7	8	9	
8	9	7	1	2	9	2	6	8

7	2	8	1	9	8	6	9	
9	8	8	2	7	6	2	9	1
1	6	9	2	8	9	2	8	7
8	1	9	7	8	1	6	2	9
8	9	7	6	9	2	1	2	8
2	1	9	6	8	9	8	2	1
9	8	2	9	7	8	1	6	
6	9	8	1	2	8	9	7	2

중부발전, 인니 전력시장 진출 中企 전력 기자재 수출 돕는다

K-그리드수출 얼라이언스 출범 중소기업 글로벌 시장 진출 도와 발전소 정비·자재보관 시설 제공

한국중부발전이 국내 중소기업과 함께 인도네시아 전력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

중부발전은 지난 10일 인도네시아 쪄레곤에서 'K-그리드 수출 얼라이언스 출범식'과 'KOMIPO-Factory 개소식'을 개최하고 전력 기자재 수출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K(KOMIPO)-그리드 수출 얼라이언스'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하는 K-그리드 글로벌 진출 전략의 일환으로, 행사에는 이영조 중부발전 사장, 양석환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참사관, 한중호 상무관, 이상희 코트라 자카르타무역관 관장과 중부발전 해외동반 진출협의회(이하 해동진) 조선영 케이엘이에스 회장 등 11개 회원사 대표 등 32명이 참석했다.

중부발전은 얼라이언스를 통해 플랫폼



한국중부발전은 지난 10일 인도네시아 쪄레곤에서 'K-그리드 수출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했다. /중부발전

폼 방식 보일러 노내 비계, 화재방지 보온재, 스윙 블라인드 밸브, DCSI/O 자동 진단장치, 누설전류 제한 장치 등 다양한 전력 기자재 수출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장기적으로는 '발전소 패키지' 수출 모델 구축이 목표다.

중부발전은 인도네시아 발전소 운영, 건설 경험을 바탕으로 현지 네트워크를 제공해 한국 기업들이 수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중부발전은 출범식 이후 인도네시아 반텐주 쪄레곤에서 중부발전과 해동진

회원사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발전소 정비와 자재 보관 시설인 'KOMIPO-Factory' 개소식을 개최했다.

KOMIPO-Factory는 인도네시아 전력 시장에 진출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자재 보관, 긴급 반출, 현지 정비 공간 제공 등의 실질적 지원을 제공한다.

또 향후 중부발전이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운영 중인 6개 발전소들과 긴밀히 연계해 국산 기자재 활용을 촉진하고 현지에서의 유지보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농식품부, UN 구호식품 조달시장 조준

기재부-조달청과 농식품 기업 지원 민관합동 세미나·현장 컨설팅 열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5일 유엔세계식량계획(UN WFP) 조달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농식품 기업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세미나 및 현장 컨설팅을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조달청,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등이 함께했다.

이 세미나는 일산 컨텍스에서 '농업 공적개발원조(ODA) 연계 농·식품 기업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유엔 세계식량계획(UN WFP) 초청 세미나'로 진행됐다.

현장에는 세계식량계획 로마본부의

식품기술관과 선임 조달담당관이 참석했다. 이들은 농식품부의 '개도국 대상 식량원조 사업'에 영양강화쌀을 납품하기를 희망하는 2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유엔 세계식량계획 식품 조달시장 참여방법, 기술 및 품질·규격 정보, 일대일 심층 상담 등을 제공했다.

또 정부의 ODA 5개년 계획과 UN 조달시장 진출에 대한 정부의 수출지원사업들을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6~7일 식품기술 전문가 등과 함께 기업 생산 현장을 찾아 세계식량계획이 요구하는 식품 생산 기술 및 품질 조건에 대한 일대일 심층 컨설팅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최중경 대사, 한미 산업투자협력 강화 나서

국제투자협력대사 방미... 본격 활동 "양국, 상호보완적 시너지 창출할 것"

정부가 우리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탈을 국제사회에 적극 설명함으로써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지난 1월 임명된 대외직명대사인 최중경 국제투자협력대사가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중경 국제투자협력대사가 10일~14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주요기관들과 한-미 간 안정적 경제·산업·투자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고 11일 밝혔다.

최 대사는 워싱턴에서의 첫 번째 일정으로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과 '한-미 산업·투자 협력 세미나'에 참석 기조발언을 통해 "미국은 기술력, 한국은 세계적인 제조역량을 가지고 있다"며 "양국은 서로에게 없는 강점을 보완한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를 기반으로 상호호혜적인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대사는 또 "한국기업들의 반도체, 배터리 등 제조업 분야의 미국 내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정책 일관성과 법적 안정성의 확보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한전, 데이터센터 전기공급 허수신청 적발

한전 감사실, 자체감사 우수사례 발표 데이터센터 전기공급 실태 특별감사 과잉투자 비용 약 117조 발생 차단

한국전력 감사실은 지난달 28일 감사원이 주최한 '2025년도 자체감사 책임자 회의'에서 우수 자체감사 사례로 '데이터센터 전기 공급실태 특별감사' 성과와 감사활동 노하우 등을 발표했다.

한전 감사실은 실제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거나 운영할 계획이 없는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미리 전기공급 승인을 받은 후 해당 부지를 매매해 최소 3배 이상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전기공급을 신청하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실태 파악을 위해 '데

이터센터 전기공급실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2020년 1월 ~ 2023년 2월까지 한전에 접수된 데이터센터 전기 사용예정통지 총 1001건 중 실수요 목적이 아닌 부동산 개발이익 목적의 허수 신청이 678건(6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 감사실은 이같은 허수가 대량 포함된 데이터센터 전력수요자료가 정부에 제공돼 국가적 전력수요예측의 정확성이 결여된 문제 해결을 위해 데이터센터 허수 수요를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해 정확한 정보를 정부 측에 제공하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더 나아가 내부 감사조치 요구에만 그치지 않고, 특별감사 결과 확인된 데

이터센터 관련 사회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센터 허수 신청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과 데이터센터 지역분산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센터 설립 권장지구 지정', '데이터센터 연관산업 클러스터 구축', '부동산 투기제한조치 병행' 등 정책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한전 감사실이 특별감사를 통해 확인한 허수 수요량은 약 26기가와트(GW) 이상으로, 이같은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선 원자력발전소 18개 이상을 추가 건설해야 하며, 그외 전력인프라 건설비용까지 합하면 약 117조원의 전력설비 과잉투자 발생 가능성을 사전 차단한 성과로 평가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가스공사, 안전·청렴 실천 결의대회 개최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10일 대구 본사에서 안전의식 제고와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한 '안전·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최연혜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전국 사업소장, 안전·청렴 관련 실무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청렴 실천 결의문 낭독 및 서명 ▲안전·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다짐 등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체계적인 안전 관리로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현장 환경을 만드는 한편, 모든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는 청렴한 조직 문화 조성에 적극 나서자고 다짐했다.

특히, 산업 현장에서의 기본 안전수칙 엄수, 적극적인 사전 위험성 평가 시행 등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무재해 사업장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입을 모았다.

/세종=한용수 기자

한전KDN, 입찰 담합... 3900만원 과징금

협력사 엑셈 들러리 세우 낙찰받아

한전 자회사인 한전KDN이 한전이 발주한 구매입찰에 협력사를 들러리로 불러 담합했다가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전이 2022년 10월 발주한 비정형데이터 저장용 스

토리지 자재구매입찰에서, 한전KDN과 협력사 엑셈이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투찰 가격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전KDN 입찰

담당자는 2022년 10월 12일 나주시 본사 인근 찻집에서 엑셈 영업상무를 만나, 입찰에서 한전KDN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

엑셈 남부지사장은 입찰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입찰 당일인 2022년 10월 31일에는 한전KDN으로부터 전달 받은 금액보다 약간 높은 금액으로 투찰, 결국 한전KDN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세종=한용수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48 | 해질 / 18:36

3월

12일 (水)

음력 : 2월 13일

수도권 날씨

6 ~ 13°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연천 2/12	가평 2/12
동두천 3/13	양평 3/13
파주 2/12	용인 5/12
서울 6/13	평택 3/13
인천 5/11	수원 5/12
백령도 5/9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캐나다 온타리오, 美수출 전력에 25% 할증...
트럼프 "관세 남용국"
▲'우크라이나 평화군' 논의 본격화...파리서 30개국
군수뇌부 회의 /사진 뉴시스

▲주일 중대사 "日총리 방중 협의중...연내 한중
일 정상회의 참가"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 4월? 6월?... 시기,
장소 두고 물밑 신경전

▲머스크 "경영에 큰 어려움" 테슬라 폭락에도
"장기적으로는 괜찮다"
▲美노동부 장관 후보, 상원 인준 통과...진용 갖
춘 트럼프 내각



풀무원
매출 3조 달성
글로벌사업 확장
나



Life

정의선 회장
체코 정부
외교훈장 받아
L4



경제적 어려움이 학업 막지 않도록... 반세기 이어온 숭고한 뜻

종근당고촌재단은 반세기가 넘는 기간동안 1만여명의 어려운 학생들을 꾸준히 지원해 온 장학재단이다. 우리나라 공익법인의 효시를 이루는 양영재단과 경방육영회에 이어 기업 재단으로는 설립 순위 10위 내에 꼽힐 만큼 깊은 역사를 가졌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어렵게 모은 사재를 사회에 환원하고자 했던 창업주 고(故) 고촌(高村) 이종근 회장의 굳건한 신념과, 실질적이고 가치 있는 장학사업으로 차별성을 꾀하고자 했던 이장한 회장의 나눔경영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종근당고촌재단은 지난 1976년 처음 장학사업을 시작한 이후 52년간, 1만522명에게 734억 원의 장학금 및 학술비 등을 지원해 왔으며 연간 25억원 규모의 공익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무상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받는 혜택을 고려하면 연간 40억원 이상의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셈이다.

대한민국 희망을 찾아서

2 종근당고촌재단

◆어려운 학생 위해 사재를 털다

반세기의 시작은 이종근 회장이 사재를 출연하여 설립한 '종근당장학재단'이었다.

재단은 설립 첫 해 16명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시작으로 1976년 '이종근 기금'을 통해 종근당 주식을 기증받으며 본격적인 장학사업을 시작했다. 1977년 종근당고촌재단의 장학생은 112명으로 설립 4년 만에 연간 100명 이상을 지원하는 중견 장학재단으로 성장했다.

1984년에는 이종근 회장이 개인 재산인 지상 5층 규모의 영등포 빌딩과 충청로에 건축한 종근당 빌딩에서 얻은 임대수입을 재단 기금으로 기증했고, 1993년 이종근 회장 영면 이후에는 토지와 건물, 주식 등 약 200억원에 달하는 사재를 유증받아 기본 자산을 확대하며 장학사업을 더욱 확장해 나갔다.

장학재단의 시작은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한 종근당 직원들에게 최소한의 교육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사회공헌에 대한 설립자의 각별한 철학으로 그 대상이 점차 사회 취약계층으로 확대되어 나갔다.

1977년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의 취약 자녀 중 교육비를 지원받는 학생이 전체의 1할도 미치지 못하자, 당시 내무부는 기업 재단에 이들 자녀의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종근당 장학재단(現 종근당고촌재단)은 장학금 지급을 위한 정관을 개정하고 서대문구 소속 공무원 자녀 고등학생을 추천받아 장학금을 지급했다.

◆창업주 숭고한 뜻 계승한 이장한 회장

1993년 이종근 회장이 작고하자 이장한 회장은 지난 30년간 아버지의 숭고한 뜻을 계승해 재단의 장학사업을 이어왔다. 이장한 회장은 재단의 재산증대나 목적사업 발굴 등 모든 면에서 재단의 품격을 한 단계 도약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장한 회장이 한국 제약산업에 기여한 공로를 기림과 동시에 결핵 퇴치 활동을 후원할 목적으로 국제적인 시상 제도의 필요성을 제안하면서, 2005년 5월 3일 고촌상 제정이 승인됐다. 당시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으로 있던 고 이종욱 박사와 이장한 회장의 각별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고촌상은 WHO 산하(현 유엔연구사업소 산하) 결핵퇴치 국제협력사업단(Stop TB Partnership) 주관으로 매년 주제를 선정하고, 전 세계 후보자를 모집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지난 2023년 미국 뉴욕의 UN 본부에서 열린 '제17회 고촌상 시상식'에서 수상자인 STOP TB 파트너십 루치카 디티우(Lucica Ditiu) 사무국장, 고촌상 선정위원 멜 스피겔만(Mel Spigelman), 우크라이나 보건부 공공 의료 센터 야나 테를리바(Yana Terleeva) 박사, 종근당고촌재단 김두현 이사장, 우크라이나 보건부 공공 의료센터 올가 그보즈데츠카(Olga Gvozdetzcka) 박사(왼쪽부터)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종근당고촌재단

1976년, 이종근 회장 사재 출연해 장학재단 설립 52년간 1만522명에게 734억 장학금·학술비 지원 결핵 퇴치 기여 후원 '고촌상', 국제적 위상 높여

국내 장학사업, 해외로 확대... 글로벌 인재 양성 지방출신 대학생 무상 주거 지원 '고촌학사' 마련 학술·연구 분야 지원, 장학생 재능 기부 '선순환'

다. 고촌상은 종근당고촌재단이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장한 회장은 이에 지지 않고 2013년 국내를 대상으로 진행하던 장학 사업을 해외로 확대하며 재단의 글로벌 행보를 이어갔다. 경제적 취약계층의 학업을 지원하는 재단의 장학 사업 취지에 맞게 저소득 개발도상국가 대학생들의 학자금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베트남에서 시작된 글로벌 장학 사업은 르완다, 인도네시아까지 확대되어 지난 11년간 461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글로벌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다.

◆민간장학재단 최초, 무상 주거 지원

종근당고촌재단은 2011년부터 무상기숙사 지원 사업을 시작하며, 타 장학재단과 차별화된 행보를 시작했다. 주거 문제를 겪는 대학생을 위해 민간장학재단 최초의 주거 지원 시설인 종근당고촌학사가 마련된 것이다. 이 역시 이장한 회장이 처음으로 제안해 시작된 일이었다.



▲고촌상 메달

서울 소재 학교에 진학한 지방 출신 대학생들의 가장 큰 고충이 등록금과 주거 문제다. 이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재단은 공과금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졸업 때까지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2011년 서울 동교동 1호관을 시작으로 2012년 휘경동, 2014년 중곡동, 2020년 영등포동에 2, 3, 4호관을 순차적으로 개관했다. 총 수용 인원은 314명 규모이다. 특히 4호관은 100명 이상의 여학생 수용이 가능하고, 치안에 취약한 여학생을 위해 최신 보안경비 시설을 갖추고 있다.

고촌학사는 단순한 학자금 지원뿐 아니라 대학생들이 겪는 현실적인 고충을 헤아리고, 생활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 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고촌학사에 거주중인 장학생들은 소재지역 저소득 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 지원등의 멘토링 활동에 참여한다. 무상 주거

의 수혜자가 나눔정신에 동참하면서, 새로운 주거복지 사업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종근당고촌재단은 고촌학사 운영을 통해 대학생 주거복지에 기여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2019년 주거복지 문화운동본부에서 주최하는 '주거복지문화대상'에서 종합대상, 2020년 국토교통부 주최 '주거복지인 한마당 대회'에서 '주거복지 유공자 국무총리 단체 표창'을 수상했다.

이 무상 주거 지원 사업은, 일반적으로 장학재단이 성적 우수 인재 중심의 장학사업을 펼치는 것과 달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회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고촌의 의지는 설립 52년에 이른 지금까지 이어지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강한 신념을 대물림하고 있다.

◆차별화된 사업으로 품위를 높인다

종근당고촌재단은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외에 학술 및 연구지원 분야에서도 다양한 지원사업을 전개해왔다.

한국 제약산업의 발전에 큰 업적을 남긴 이종근 회장의 약업보국 정신과 이장한 회장의 학술진흥을 통한 사회공헌의지가 여러 학술기관의 기초연구 지원사업으로 이어진 것이다.

재미 한인과학자와 국내 과학자로 구성된 바이오의학연구회(SBR) 학술상운영, 재외동포 의료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연구비 지원, 예방백신 연구지원을 위한 국제백신연구소 후원 등 1985년부터 오늘날까지 103단체 112명에게 총 37억원을 지원하며 사회적,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는 국내외 단체 및 연구자를 꾸준히 지원해오고 있다.

종근당고촌재단 장학생들은 배움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의 성장을 돕는 교육 재능 기부(학습 진도, 진로상담)에 의무적으로 참여한다. 재단은 서대문구, 광진구, 성동구, 동대문구와 '저소득 가구 자녀 멘토링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게 재단 장학생을 멘토로 제공하는 수요자 맞춤형 방식으로 체계적인 멘토링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종근당고촌재단 김두현 이사장은 "지난 50년간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포기하는 인재들이 없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평생을 육영 사업에 헌신하신 고촌 이종근 회장님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왔다"며 "앞으로 다양한 장학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들이 꿈을 향해 나아가는데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라고 전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KSPPO 스포츠가치센터, 진주시와 '건강올리고' 업무협약
▲배지환, MLB 시범경기 2경기 연속 침묵...타율 0.444 /사진 뉴스시스

▲베트남, 이운재·이정수 코치 품었다...김상식호 전격 합류
▲호날두, 개인 통산 927호골 폭발...알나스르, ACLE 8강 진출 성공

▲'브라질 축구 스타' 네이마르, 또 부상 이슈 제기
▲피겨 차준환 "IOC 선수위원 면접, 유의미한 과정"